

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9년 2월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대표 직책 표기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위원장'
-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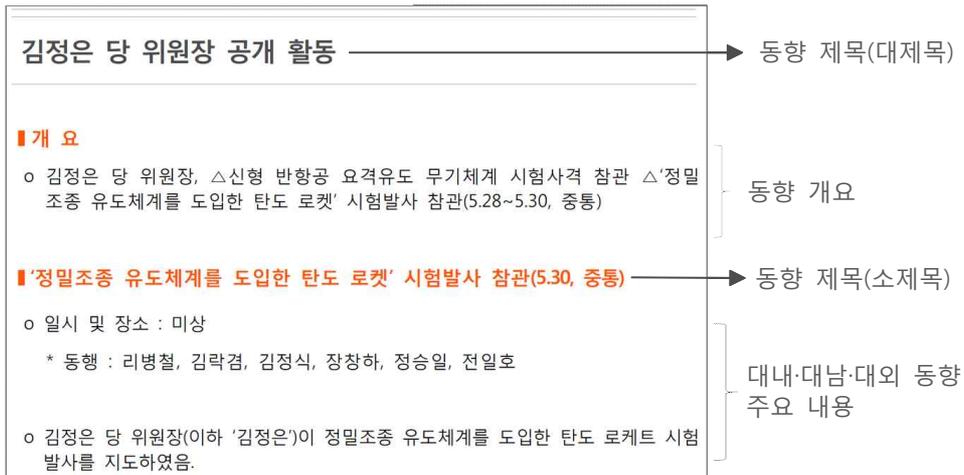
-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폐허(폐허)
-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 동일한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최초 1회만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황 1

대내동향

김정은 공개활동 6

박봉주 내각총리 현지 요해 14

자립경제 강화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 16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위원회 조직 18

과학농사 열풍 일으킬 것 강조 19

농업 및 인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 확보 투쟁' 강조 22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 25

산림복구 2단계 적극 추진, 산림책임할당제 도입 27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 28

석탄 증산으로 '당의 전략노선 관철' 촉구 30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 진행 32

원산 구두공장 김정일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33

공로 있는 단위와 일꾼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 35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관계부분 회의 36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37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38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 39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경제발전에 매진" 촉구 40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 42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 43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건설 위한 7만산발파 진행 44

'전력생산 증산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동' 강조 45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 47

증산투쟁과 함께 "절약사업 강화" 강조 48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선거자 명부 공시 50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요건 강조 5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위한 노력 강조 52

김정은 베트남 방문 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 53

'3.1 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54

대남동향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	55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F-35A 실전배치' 비난 ...	56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및 F-35A 도입 비난	57
보수정당 등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안보붕괴' 주장 비난.....	58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진행 ...	59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난 '호소문' 발표 ...	60
'민화협' 고발장, 자유한국당 비난	61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62
'5·24 조치' 해제 주장	64

대외동향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반통일세력 투쟁' 주장 ...	65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66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입장 발표	67
미국에 "공정한 제안과 올바른 협상자세" 촉구	68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 귀국 관련 일본에 사의 표시	69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 비난	70
UN 주재 일본 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기자회견 비난	71
미국 보수진영의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 견제	72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 연차총회 ...	73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 ·	74
북-러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76
리용호 외무상-팜 빙 밉 베트남 외무상 회담	77
대외정책 관련,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및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행위 불허' 강조	78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	80
日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 발언 비난 ·	81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관련 미국 비난	82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중국 예술인 종합공연 ...	83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기념우표 발행	84
일본에 과거사문제 사죄 및 배상 촉구	85
일본의 '핵무장화 준비' 비난	86
미국의 '북미 협상 반대파' 비난	87

Contents

美 '블루릿지함' 부산 입항 등 비난	88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비난	89
"일본의 역사적 최악 총결산" 촉구	90
주요인물 동정	91
월간 보도일지	107
이달의 약사	117

개황

◆ 대내동향

◆ 김정은 공개활동

- 중국에서 귀국한 친선예술대표단과 기념촬영(2.1, 노동신문·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중앙위원회 주최 '경축연회' 참석(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 77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중방)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23일 오후 평양 출발(2.24,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26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도착(2.27,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대표단, 사업정형 보고(2.27,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1일 회담 진행(2.28,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2일 회담 진행(3.1,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내각 총리 현지 요해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2.3, 중앙통신)
- 영유광산 등 현지요해(2.12, 중앙통신)
- 안주펌프공장 등 여러 단위 현지 요해(2.26, 중앙통신)

◆ 자립경제 강화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2.3, 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위원회 조직(2.3, 중앙통신)

◆ 과학농사 열풍 일으킬 것 강조

- 다수확 성과를 위하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통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킬 것 강조(2.6, 노동신문/과학농사 열풍이 안아온 결실)

- ◆ 농업 및 인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 확보 투쟁’ 강조(2.7, 노동신문)
- ◆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
 -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2.7, 노동신문/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것은 애국주의의 발현)
- ◆ 산림복구 2단계 적극 추진, 산림책임할당제 도입(2.7, 조선신보)
- ◆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2.8, 노동신문/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다)
- ◆ 석탄 증산으로 ‘당의 전략노선 관철’ 촉구(2.10, 노동신문)
- ◆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 진행(2.12, 중앙통신)
- ◆ 원산구두공장 김정일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2.12, 노동신문)
- ◆ 공로 있는 단위와 일꾼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2.13, 중앙통신)
-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관계부분 회의(2.14, 중앙통신)
- ◆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2.16, 중통)
- ◆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 김정은 위원장,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하달(2.16, 중통)
- ◆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
 - 김정일 생일 77주년 기념 사설,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2.16, 노동)
- ◆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경제발전에 매진” 촉구(2.18, 노동)
- ◆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
 - 김정일 ‘저작’ 발표 45주년,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2.19, 노동)
- ◆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
 - “강국의 자존심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서 온다”며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2.20, 노동)

- ◆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건설 위한 7만산발파 진행(2.21, 노동신문)
- ◆ '전력생산 증산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동' 강조(2.22, 노동신문)
- ◆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
 - "대외적 환경과 생활조건 좋아질수록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2.22, 노동)
- ◆ 증산투쟁과 함께 "절약사업 강화" 강조(2.23, 노동신문)
-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선거자 명부 공시(2.24, 중앙통신)
- ◆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요건 강조
 -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미풍 발휘, 비도덕적·비문화적 현상 통제, 일심단결, 책임 일꾼들 역할' 강조(2.24, 노동신문)
-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위한 노력 강조(2.25, 노동신문)
- ◆ 김정은 베트남 방문 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2.26, 노동신문)
- ◆ '3.1 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2.28, 중앙통신)

대남동향

- ◆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2.5, 중앙통신)
- ◆ 우리 군의 '국방증기계획 발표' 및 'F-35A 실전배치' 비난(2.6, 노동신문)
- ◆ 우리 군의 국방증기계획 및 F-35A 도입 비난(2.13, 노동신문)
- ◆ 보수정당 등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안보붕괴' 주장 비난(2.13, 중앙통신)
- ◆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진행(2.14, 중앙통신)
- ◆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난 '호소문' 발표(2.14, 중앙통신)
- ◆ '민화협' 고발장, 자유한국당 비난(2.16, 중앙통신)
- ◆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남-북-해외 간 FAX로 진행(2.21, 중앙통신)

◆ '5·24 조치' 해제 주장

- '5·24 조치' 등 “교류협력 저해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제거” 주장(2.26, 우리민족끼리)

대외동향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반통일세력 투쟁' 주장(2.1, 중앙통신)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2.2, 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입장 발표

-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정부와 인민의 자주적 의사 존중” 입장 발표(2.3, 중앙통신)

◆ 미국에 “공정한 제안과 올바른 협상자세” 촉구(2.4, 우리민족끼리)

◆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 귀국 관련 일본에 사의 표시

-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방조를 제공한 일본에 사의 표시(2.4, 중앙통신)

◆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 비난(2.7, 노동신문)

◆ UN 주재 일본 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기자회견 비난(2.9,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 보수진영의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 견제(2.11, 우리민족끼리)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 연차총회(2.11, 중앙통신)

◆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

- 재일동포 개인 필명의 기사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2.13, 노동신문/김정은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

◆ 북-러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2.13, 중앙통신)

◆ 리용호 외무상-팜 빙 밍 베트남 외무상 회담(2.13, 중앙통신)

- ◆ 대외정책 관련,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및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행위 불허' 강조(2.13, 중앙통신)
- ◆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2.19, 중통)
- ◆ 일본의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 발언 비난(2.19, 노동)
-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관련 미국 비난(2.20, 노동)
- ◆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중국 예술인 종합공연(2.20, 중통)
- ◆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기념우표 발행(2.22, 중통)
- ◆ 일본에 과거사문제 사죄 및 배상 촉구(2.22, 노동)
- ◆ 일본의 '핵무장화 준비' 비난(2.23, 노동신문)
- ◆ 미국의 '북미 협상 반대파' 비난(2.24, 중앙통신)
- ◆ 美 '블루릿지함' 부산 입항 등 비난
 - 미국 '블루릿지함'의 부산 입항과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참가병력 방한 비난(2.25, 노동신문)
- ◆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비난(2.27, 중앙통신)

김정은 공개활동

■ 중국에서 귀국한 친선예술대표단과 기념촬영(2.1, 노동신문·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이 1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음.
- 전체 예술대표단 성원들은 이번 중국방문공연이 조종친선의 새시대를 빛내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준비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었을 뿐 아니라 조국을 멀리 떠나있는 전사들에게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여러 차례 감사 전문까지 보내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고 친선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리도록 이끌어준 김정은 위원장을 우러르며 무한한 걱정 속에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예술대표단 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중국당과 중국 인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성의가 어린 훌륭하고 열정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올해 조중문화교류의 첫시작을 이채롭고 의의 있게 장식하고 조종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시키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풍만한 공연성과로 실천한 예술대표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높은 예술적기량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중국 방문공연을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내외분과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들에게 기쁨을 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정서적, 문화적紐대를 추동하고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한 예술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감사를 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변자로서 당의 사상과 의지가 맥박치는 참신한 예술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사회주의를 옹위하고 강력한 우리 식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주체 음악예술발전의 핵심력량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크나 큰 믿음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음.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인민무력성을 축하 방문하였음.
-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음.
-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맞이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무력성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앞에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무력성회의실에서 인민무력성 장령, 군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건군절을 맞는 그들을 뜨겁게 축하 해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에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역사적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은 군건설의 총적임무인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의 근본담보이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음.
 -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다각적으로, 립체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군을 당과 혈맥이 통하고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운명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음.
 - 군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 백두의 혁명정신이 전군에 내려치도록 할 데 대하여 말하였음.
 -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심도 있게 벌려 군인대중이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미래를 총대로 견결히 수호해나가도록 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인민군대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혁명군대의 고유한 사업방식인 군정배합을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전군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인민군대의 최정예화는 혁명무력건설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훈련혁명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백전백승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비롯한 낡은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 없이 개선할데 대하여 말하였음.
 -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의 훈련 열의와 경쟁심을 최대로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사상혁명, 훈련혁명, 무장장비현대화,군기확립에 우리 혁명무력의 최정예화를 더욱 다그치는 근본비결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에서 3대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후방사업과 군인생활개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말하였음.
 - 인민군대에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계속 추켜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민군대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인민군대앞에 맡겨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었음.
 - 인민군지휘성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자기 부문사업을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로정도를 만들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 하며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고 하면서 전군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 하였음.
- 전체 참가자들은 연설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최정예혁명 강군답게 조국보위와 평화수호의 역센 기둥,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음.

■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창건 71돛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였음.
- 리명수 조선인민군 제1부사령관, 김수길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인민군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룡해,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김영철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음.
-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가 극장관람석에 나왔음.
- 김정은 위원장은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하면서 조선인민군 창건 71돛을 열렬히 축하하였음.
- 관현악 《빛나는 조국》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최고사령관 동지 건강을 축원함》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음..
- 공연은 장중하고도 풍만한 정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음.
- 김정은 위원장의 재청에 의하여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국기》가 장룡식 당 부부장의 지휘속에 다시 연주되자 장내는 무한한 격동과 흥분에 휩싸였으며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음.
-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는 장내는 김정은 위원장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충정의 대하마냥 설레이었음. 김정은 위원장은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이 문예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명절날의 저녁늦게까지 함께 하며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의 붉은 총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받들고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음.

■ 당 중앙위원회 주최 '경축연회' 참석(2.9,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1돛에 즈음하여 연회를 마련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연회에 참석하였음.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체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이 참가하였음.
-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연회장에서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다시 한 번 열렬히 축하하였음.
- 연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인민군대에 보내는 축하연설을 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생일 77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2.16 평양
 - * 동행 : 최룡해(당 부위원장), 리만건(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영식(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 김정은 위원장은 광명성절(2.16)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고 김정일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친 장군에게 영생 축원의 인사를 하였음.
- 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장군의 애국 념원, 강국 념원이 꽃피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 갈 결의를 다지였음.

■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23일 오후 평양 출발(2.24,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일자 및 장소: 2.23, 평양역
 - * 동행 : 김영철(당 부위원장), 리수용(당 부위원장), 김평해(당 부위원장), 오수용(당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노광철(인민무력상), 김여정(당 제1부부장), 최선희(외무성 부상)
 - * 환송 : 김영남(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당 정치국 상무위원), 박봉주(당 정치국 상무위원)
- 김정은 위원장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렬차는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 26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도착(2.27,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일자 및 장소: 2.26, 베트남 하노이
 - * 영접 : 김명길(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북한대사)
- 김정은 위원장이 2월 26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선전교육부장인 보 반 트영,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판공실 주임 마이 띠엔 중, 외무성 부상 레 호아이 쯩, 월남공산당 랑썬주위원회 비서 팜 티 흐영 타잉을 비롯한 월남 당 및 정부 간부들이 역에 나와 있었음.
-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 최고령도자동지가 탄 전용렬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성, 도시들을 경유하여 월남의 국경역인 동당역에 도착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향하였음.
- 숙소에서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웬 득 쯩동,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상임 부주임 황 공 환, 월남공안성 부상 상장 부이 반 남이 맞이하였음.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대표단, 사업정형 보고(2.27,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일자 및 장소: 2.26,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월남 하노이에 도착하여 제2차 조미수뇌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았음.
- 《멜리아》호텔에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하여 조미 두 나라가 현지에 파견한 실무대표단 사이의 접촉정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1일 회담 진행(2.28,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일자 및 장소: 2.27, 베트남 하노이
 - * 동행 : 김영철(당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 김정은 위원장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고 단독 회담과 만찬을 하였음.
- 현지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30분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두번째 상봉과 단독 회담, 만찬이 이루어졌음.
- 조미 최고수뇌들이 상봉하게 될 《메트로뽕》호텔의 《라 베란다》면담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8개월만에 상봉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낯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다고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음.
- 조미 최고수뇌들은 이어 단독회담을 진행하였음. 이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였음. 북측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외무상 리용호가, 상대측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비서실장대리 마이크 말베이니가 참석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2일 회담 진행(3.1,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일자 및 장소: 2.28, 베트남 하노이
 - * 동행 : 김영철(당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 김정은 위원장은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고 회담하였음.
-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조미수뇌회담 장소인 하노이시의 《메트로뽕》호텔에서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였음.
-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수십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 방도를 논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음.

박봉주 내각총리 현지 요해

■ 주요 내용(2.3, 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박봉주는 연합기업소들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고 있는 로동계급을 고무해주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강철로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투쟁전통을 이어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음.
- 한편 박봉주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주요 내용(2.12, 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가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유광산과 증산광산, 신계린회석광산을 돌아보면서 박봉주는 일군들이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선광장들을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련관단위들에서 자재보장을 따라세우며 광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료해하면서 박봉주는 생산에서 질제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주요 내용(2.26, 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가 안주뽕프공장과 안주절연물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개조하며 자체의 후방기지를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데 대하여 강조
 - 일군들이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절연물의 질제고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박봉주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도 현지료해하였음.
 -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련관부문들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울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이에 앞서 박봉주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과 교육과학전시관을 돌아보았음.

자립경제 강화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

■ 주요내용(2.3, 노동신문)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음.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전체 인민이 강대국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혀야 합니다.》
-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한다는 것은 전체 인민이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국가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함.
-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 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임.
-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는데서 강력한 군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바로 법임.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가혹한 반공화국제재봉쇄와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 법질서가 약화된다면 사회에 무규률과 무질서가 조장되고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며 계급적원수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이 준동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됨.
-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보다 가속화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임.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섬. 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데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적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며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조치들이 강구되어야 경제강국건설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음.
- 법적기강을 확립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임.
-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 것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문화정서생활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확고히 담보되고 있음.
- 공화국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문화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음.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규범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보다 훌륭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며 생활하려는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게 됨.

-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인민들이 폐부로 느끼게 하자고 하여도,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우리 조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 이자고 하여도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어야 함.
- 모든 공민들은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적삶을 법으로 지키고 튼튼한 법적토대우에서 룡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남김없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위원회 조직

■ 개 요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조직 및 사업 착수(2.3,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음.

과학농사 열풍 일으킬 것 강조

■ 개 요

- 다수확 성과를 위하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통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킬 것 강조(2.6, 노동신문/과학농사 열풍이 안아온 결실)

■ 주요 내용

- 뜻깊은 이 아침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적농업발전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투쟁해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농사에서 제일 걸린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고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를 불러 일으키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알곡증산을 위해 땀흘렸을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남먼저 헤아려 주시였음.
- 그 믿음과 사랑, 따뜻한 정을 가슴깊이 간직한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음. 그 과정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낼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였음.
- 산간지대농사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거둔 금강군 현리협동농장의 경험을 놓고 봄. 농장에는 1200여개나 되는 크고 작은 포전들이 있음. 토양의 특성 및 농작물재배 조건이 음지쪽과 양지쪽, 웃포전과 아래포전이 다르고 그 모양새도 서로 달랐음. 즉 모든 포전에서 다수확을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음.
- 그러나 일군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면 얼마든지 별방지대 농장들 못지않게 전반적인 포전에서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 달라붙었음.
- 그들은 포전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돼기별, 필지별로 품종배치와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략도를 만들었음.
-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이 포전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였음. 특히 다른 농장사람들이 논물온도가 떨어진다고 만류하였지만 과학농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지난해 6월 중순부터 모든 포전에 정보당 60t의 청풀갈기를 질적으로 진행하였음.
- 결과 지력도 높이고 수습일간 지속된 고온속에서도 농작물이 안전하게 자라게 하였으며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77%로 넘쳐 수행하였음.
- 삼지연군 중흥농장에서 들려온 다수확소식은 또 무엇을 되새겨주고 있는가. 일군들은 감자대풍을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힘을 넣었음.

- 그들은 작업반들에서 매일 아침모임시간에 기술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문답집을 농업근로자들이 늘 품고다니며 공부하게 하였음.
- 문답식학습방법과 영농공정별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도를 적은 직관판을 작업반마당, 포전도로, 포전머리마다 게시해놓고 출퇴근과 휴식 시간에 읽어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이 실력을 높이도록 하였음.
- 이 과정에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어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영농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갔음. 결과 농장에서는 저온과 고온, 가물, 장마를 비롯하여 일기조건이 그토록 불리하였지만 정보당 평균 45t의 감자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음.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경험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됨. 두벌농사의 목적은 땅의 리용률을 높여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최대로 늘이자는데 있음. 여기서도 기본은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임.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음.
- 그중의 하나가 강냉이종자저온처리기술을 받아들인 것임. 농장에서는 2월말~3월초에 강냉이영양단지모판씨뿌리기를 하고 두텁게 복토한 다음 박막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저온처리를 하였음. 이렇게 하니 강냉이는 뿌리가 실향되고 대도 훨씬 굵어졌으며 병충해에 대한 견딜성도 강해졌음. 가물을 극복하는 힘도 세졌음.
- 전반적인 두벌농사포전에 강냉이종자저온처리기술과 두줄모아심기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통풍 및 빛합성이 잘되고 감자생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음. 결국 강냉이와 감자의 옹근소출을 낼 수 있었으며 감자뒤그루로 가을남새나 들깨 등을 심어 겹재배에 의한 세벌농사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었음.
- 이처럼 농장에서는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원그루로 심은 강냉이 포전에서 정보당 평균 11t이상의 소출을 냈음. 그리고 두벌, 세벌농사포전에서 정보당 평균 강냉이 12t, 감자 28t을 생산하고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62%로 넘쳐수행하였음.
- 알곡생산계획이 높은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의 다수확경험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농사일을 과학화하지 못하여 소출을 높이지 못하곤 하였음. 여기서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농사를 짓던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넣었음.
- 특히 벼의 잎수, 키, 아지수, 영양상태조사와 병해충예찰을 강화하고 그에 맞게 영양관리, 물관리 등 비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육예보체계를 세웠음. 일군들은 포전별, 필지별로 조사지점을 만들고 모를 낸 시기부터 이삭이 팠 때까지 5일간격으로 벼의 생육상태를 정확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비배관리를 철저히 과학화하였음.
- 그리고 토양알갱이조성과 온도조건, 김이 싹트는 시기 및 종류에 따라 살초제를 선택하고 사용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김잡이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음.

- 이 단위들만이 아님. 지난해 흥원군 읍협동농장과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농산 제1작업반,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제1작업반 등 각지의 수많은 농장, 작업반, 분조가 거둔 다수확성과는 다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들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였음.
- 다수확을 낸 단위들의 경험을 놓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 정책과 주체농법은 과학이고 승리이며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알곡 증산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뼈속 깊이 되새기고 있음.

농업 및 인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 확보 투쟁' 강조

■ 주요 내용(2.7, 노동신문)

-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겨울철 눈내림량이 레년보다 대단히 적음.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평균강수량이 3.6mm로서 평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음. 물을 더 많이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현시기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앞에 나선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물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임.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강하천운수를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건설과 국토관리도 잘 할 수 없음.
- 올해에 우리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자고 하여도 결정적으로 물문제를 풀어야 함. 지금 세계적으로도 물문제 해결은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물자원의 고갈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공업, 농업용수의 엄청난 소비와 물오염 등으로 물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
- 현실은 물자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오늘날 물확보를 위한 사업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일념을 안고 새해벽두부터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농촌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이 훌륭한 결실을 맺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농사의 관건적고리인 물확보를 위한 사업을 어떻게 다그치는가 하는데 달려있음. 논농사는 곧 물농사이며 물 확보이자 알곡증산임.
- 물이 부족하면 씨뿌리기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없고 정보당 알곡 소출을 높일 수 없음.
- 지난해의 농사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음. 협동농장들에 비료가 넉넉히 공급되었지만 물을 원만히 확보하고 리용한 단위들에서는 고온과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냈으나 그렇지 못한 단위들에서는 응당한 소출을 내지 못하였음.
- 이것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견인불발하여 물원천을 모조리 찾고 이악하게 노력한 실농군들에게는 풍년열매가, 앓아서 우는소리를 하는 패배주의자들에게는

쫓정이가 차례진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음. 현시기 우리 당은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 안고 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올해에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임.
- 우리에게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대규모의 자연흐름식관개체계가 있고 농업생산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난관과 애로속에서도 농사에서 혁신을 창조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음.
- 전체 인민이 불굴의 정신력과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물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수 있음.
-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며 눈이 오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님. 물확보를 위한 사업이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함.
- 물확보를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 농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물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함.
- 농촌들에서는 저수지와 저류지, 보막이건설, 물주머니만들기, 논판물잡이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굴포와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아 지하수도 퍼올리고 새 물길도 건설하여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게 하여야 함.
- 역수양수장들에서는 양수설비수리정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하고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저수지, 저류지, 물주머니들에 물을 가득 채워넣도록 하여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은 자기의 어깨우에 올해농사의 운명이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드세게 밀고나가야 함.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밭이 닳도록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가면서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야 함.
-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기계와 로력을 총집중하며 지휘를 패기 있게 함으로써 모두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물잡이 시설을 최대한 빨리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함.
- 관개부문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물잡이정형과 관개구조물들, 양수동력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물확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준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면한 물잡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물확보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떨쳐나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함.

- 자기 분조, 자기 작업반, 자기 농장의 물문제를 제힘으로 해결할 각오를 안고 씨 뿌리기와 모기르기에 전적으로 보조수원과 지하수를 리용하여야 함.
- 그리하여 저수지의 물을 극력 아껴쓰으로써 올해농사에서 물부족, 가물피해란 말 자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농촌들에 역수양수기운영과 저수지, 저류지를 비롯한 물확보시설공사에 필요한 전력과 세멘트, 연유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함.
- 각지 농촌에 새로 건설하는 물확보시설의 위치선정과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공사에 선행시켜야 함. 황해남도 물길 2단계공사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설비,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함.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함.
- 물확보를 위한 사업은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투쟁임.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으로 숨쉬고 당정책관철로 부글부글 끓어야 할 때임.
-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기 지역의 물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립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함.
-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창조열을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함.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널리 과시하여야 할 것임.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

■ 개 요

-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2.7, 노동신문/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것은 애국주의의 발현)

■ 주요 내용

- 우리 근로자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일욕심은 곧 애국주의의 발현이며 이것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고귀한 밑천으로, 강력한 힘으로 됨.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애국주의는 특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 애국심은 말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품성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나서자란 조국땅을 살점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고 의무임.
- 조국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추상이 아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며 이것은 곧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하나로 잇닿아 있음. 자기가 맡은 일에 온넛을 쏟아붓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 거기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는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 바로 이것이 애국주의임.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직업은 보수나 명예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사회적분공으로, 조국과 인민, 자기자신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됨.
-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 우리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가 있음.
- 자기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조국의 전진발전에 기여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도 나오고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왕성한 일욕심, 무한한 애국적헌신성도 나옴.
- 열렬한 직업애, 애국심의 진가는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남. 지금 우리에게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음. 하지만 높은 사업실적으로 조국을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음.
-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삶의 보람과 행복의 기준은 바로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가 하는데 있음.

- 아무리 남보다 직위가 높고 오래 산다 하여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남긴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없음.
- 그 어떤 직종, 직무에서 일하든지 오로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것이 곧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당과 인민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길이며 자기자신을 위하여 가장 참되게 사는 길임.
- 사회주의애국공로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묵묵히, 성실히 지켜온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 높은 칭호임.
-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임.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맹세나 다지고 구호나 웨치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지켜선 초소마다에서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남겨야 할 때임.
- 행복과 번영의 열쇠는 우리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에서 보다 높은 실적을 올려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성과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일터,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간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을 발휘하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보다 큰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 것임.

산림복구 2단계 적극 추진, 산림책임할당제 도입

■ 주요 내용(2.7, 조선신보)

- 올해에도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가 전국가적, 전군중적사업으로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2015년에 시작된 산림복구전투는 지난해부터 2단계에 들어섰음. 1단계 과업이 수행된 결과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 전국적으로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벌려 산림조성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나무모 생산에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이 지난 시기에 비해 2배로 장성되었음. 또한 심은나무사름률이 훨씬 높아지고 시,군양묘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졌으며 국가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체계가 확립되었음.
- 각 도, 시, 군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산림담당리를 규정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m²당책임제를 적용하여 산림에 대한 대중관리, 군중관리가 실현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중요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산림복구전투 2단계의 두번째 해인 올해에 산림조성, 나무모생산, 종자확보, 심은나무가꾸기, 사방야계공사, 산불막이선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과업들을 내세우고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음.
-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 홍철호(56살)에 의하면 올해중에 수십여만정보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식수해야 할 산림조성계획을 세웠다고 함.
- 올해 봄철과 가을철에 전국각지에서 국수인 소나무와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세잎 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
- 각 도양묘장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연간 2,0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으로 새로 건설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되게 됨. 지난해 준공된 강원도양묘장이 그 본보기, 표준대상으로 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전국의 시, 군양묘장들에 한해에 두회전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모온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무모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도 중요하게 내밀고 있음.
- 산불원격감시카메라에 의한 산불방지과 발생정형에 대한 실시간감시체계를 통해 산불감시와 통보, 전화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음.
- 모든 시, 군들에서 생물농약생산기지를 꾸리고 생물농약과 기생벌생산을 늘여 산림 병해충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음.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

■ 개 요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2.8, 노동신문/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다)

■ 주요 내용

- 조선인민군은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최정예혁명강군임. 우리는 조선인민군창건 7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음.
- 김일성 주석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주체37(1948)년 2월 8일은 주체적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날임.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었음.
-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 창창한 전도는 건군절과 하나로 잇닿아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위하여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센 힘을 백배해나가기라라는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정규무력건설은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들중의 하나임.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위력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도가 달려있음.
- 오늘 조선인민군은 김정은 위원장을 높이 모시여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음.
- 조선로동당기를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혁명적당군, 강毅한 투쟁정신과 높은 실전능력을 지닌 강철의 대오, 단숨에의 기상과 새로운 시대속도창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믿음직한 척후대, 바로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임.
-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임.
-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무장력임.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억척불변임.

-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임. 조국과 인민의 운명,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굳건히 수호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원수격멸의 기상을 안고 적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기 때문임. 나라의 지리적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강화되고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용은 최상의 경지에서 높이 떨쳐지고 있음.
-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적적인 신화들을 창조해나가는 힘있는 전투대오임. 지금 주체조선의 전진속도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높이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더욱더 빨라지고 있음.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태가 일반화되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발전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임.
- 오늘 우리 앞에는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를 더욱 가속화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음.
 -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함.
 - 주체적인 군건설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함.
 -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대가 되어야 함.
 -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함.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전군이 혁명의 한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우부대가 되어야 함. 모든 군인들이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하여야 함.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함.
 -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신화적인 기적창조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나가야 한다.
- 인민군대는 우리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선봉대임.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다 바쳐나가야 함.
- 인민군대의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 전투적인 일본새는 우리 인민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창조본태를 적극 구현해나가야 함.
-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 것임.

석탄 증산으로 '당의 전략노선 관철' 촉구

■ 주요내용(2.10, 노동신문)

- 지금 인민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석탄임. 당의 부름따라 새해진군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며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현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면 결정적으로 석탄생산을 늘여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척후전선입니다.》
- 석탄은 주체공업의 식량임. 석탄이 광광 나와야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 수 있고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워 당의 새로운 전략적노선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음.
- 최근년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 주체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음. 대야금기지인 김철과 황철에서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공정들이 더욱 완비되고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가 강화된것을 비롯하여 원료,연료의 국산화가 실현된 부문들이 나날이 늘어나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는 급격히 높아지고있음.
-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성과여부는 석탄생산에 크게 달려있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이곳 로동계급은 석탄보장이 긴장하여 경제발전의생명선과도 같은 전력생산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주체비료생산을 더 늘이지 못하고있음.
-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역세게 들어쥐고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가자는 것이 당의 의도임.
- 석탄증산이자 자립경제의 벽찬 숨결이고 경제건설대진군의 힘찬 보폭임.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석탄전선이 들고일어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여기에 남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민의 역센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음.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석탄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함. 석탄생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임.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지난해에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려왔다고 하시면서 척후전선

이라는 값 높은 부름과 함께 새해진군의 앞장에 탄부들을 내세워주시었음. 석탄 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t의 석탄이라도 더 증산하는 것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여야 함.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밑불이 되려는 숭고한 자각,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려는 결사의 의지,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려는 건인불발의 투쟁으로 석탄전선이 들끓어야 함.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석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힘있는 무기임.
- 각지 탄광에서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늘여나가야 함. 본력량을 막장들에 집중시키는 원칙에서 로력조직을 짜고들며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채탄과 운반을 따라세워야 함.
- 탄광기계공장들과 자력갱생기지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착암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어디서나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함.
-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들끓는 막장마다에 좌지를 정하고 모든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화선지휘관이 되어야 함. 특히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단계별생산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함.
-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함. 탄부들 모두가 척후전선의 용사라는 불같은 자각을 안고 새해진군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하여야 함. 비상히 양양된 탄부들의 투쟁열의가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생활조건보장과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함.
- 온 나라 인민이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주어야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줄수 있고 나라의 석탄산도 높이 쌓아질 수 있음.
- 련관부문과 단위들에서 탄광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중앙기관들에서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함. 탄광들의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제때에 보내주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탄부들의 로동보호물자를 지표별로 어김 없이 보내주어야 함.
- 일군들은 지켜선 초소는 서로 달라도 나라의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 자신도 석탄생산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갱목과 철판, 레루, 베아링,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탄광들에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제때에 보내주어야 함.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대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분발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임.

‘전국 로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 진행

■ 주요내용(2.12, 중앙통신)

- 전국로농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회의가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박봉주 내각총리와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만건 당 제1부부장, 김능오 평양시 당위원장, 로농적위군 각급 지휘성원들, 련관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음.
-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무력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리만건 당 제1부부장이 전달하였음.
- 리영래 당 부장이 보고를 하였음.
 - 로농적위군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주체적민간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로농적위군강화의 진로를 밝혀주고 민간무력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에게 돌려주는 사랑과 믿음은 로농적위군이 혁명보위, 향토보위, 조국수호의 결사대로 위용떨치게 하는 근본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로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 당의 주체적 민간무력 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전투력강화에서 혁신을 일으킨데 대하여 말하였음.
 - 로농적위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튼튼히 담보해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음.
 -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민방위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토론들에서는 일부 지휘성원들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민방위사업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과 부족점들도 분석총화되었음.
 - 토론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로농적위군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당중앙의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음.

원산 구두공장 김정일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

■ 주요 내용(2.12, 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한 10돐 기념보고회가 11일에 진행됨.
- 안정수 당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원산구두공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보고회에서는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원산구두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감사문을 안정수가 전달하였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원산구두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었음.
- 감사문은 원산구두공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경공업부문의 선두에서 내달리는 전형단위,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만아들공장이라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이 주체98(2009)년 2월 12일 원산구두공장을 찾아 구두견본품의 무게를 손수 헤아리시며 신발을 가볍고 질 좋게 만들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실현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음.
- 감사문은 당중앙이 원산구두공장을 물질기술적 토대와 생활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변모시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수령의 유훈과 당의 경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지난 10년간 공장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 백수십 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 도입하여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였으며 생산을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음. 감사문은 공장에서 인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백종의 구두도안들을 창작하고 생산에 받아들였으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 전람회들에 출품하여 최우수 상, 금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을 떨친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나날에 원산구두공장은 3대 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수많은 혁신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전국적인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불타는 충정과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나라의 신발 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원산구두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음.
- 보고회에서는 공장 전명화 초급당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1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데 대하여 걱정에 겨워 말하면서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강원도정신창조자답게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결의를 표명하였음.
- 그들은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직장, 작업반사이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히 벌려 맵시있고 질 좋은 《매봉산》신발풍년을 안아올 것이라고 말하였음.
- 과학기술보급실운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실현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증산돌격전을 과감하게 벌려 인민들이 선호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함으로써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공로 있는 단위와 일꾼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

■ 주요 내용(2.13, 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김정일훈장이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해방산호텔에 수여되었음.
 - 이 단위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하고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9일에 발표되었음.
- 김정일 위원장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김정일훈장이 리승호, 리경하, 강성남, 김정호에게 수여되었음.
 - 능숙한 정치사업과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국가사회제도를 믿음직하게 보위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9일에 발표되었음.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관계부분 회의

■ 주요 내용(2.14, 중앙통신)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박봉주 내각총리와 오수용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근로단체, 위원회, 성, 중앙기관, 교육기관, 도, 시, 군 당, 정권기관,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관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음.
-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무력기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을 수록한 다매체편집물 시청이 있었음.
- 편집물들에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소개되었음.
- 토지정리, 수산자원과 민족문화유산보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소개되었음.
-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 나타난 편향들이 토론을 통하여 분석총화되었음.
- 토론들에서는 각지 모체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되었음.
-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정리와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되었음.
-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도시원림록화수준을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시청도 있었음.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 개 요

-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2.16, 중통)
 - * 보고 : 최룡해(당 부위원장)

■ 주요 내용

- 김정일 동지 탄생 7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음.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해외동포축하단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음.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음.
- 보고자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 령도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조국과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걸출한 수령, 혁명의 대성인의 영광찬란한 력사라고 말하였음.
 - 김정일 동지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 위력한 사회주의로 강화·발전시킨데 대해 언급하였음.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한편 이날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과 연합기업소들에서도 진행되었음.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 개 요

- 김정은 위원장,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하달(2.16, 중통)
- 제목: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명령>

■ 주요 내용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6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음.
- 명령에 의하면 양동원, 최광준, 전태호에게 중장, 최동주, 박용호를 비롯한 27명에게 소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었음.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

■ 개 요

- 김정일 생일 77주년 기념 사설,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2.16, 노동)
- 제목: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치자>

■ 주요 내용

- 2월 16일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 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을 열렬한 애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밝은 등대이며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임. 김정일의 애국주의는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게 하는 투쟁의 기치임.
- 지금 우리 인민은 어려운 속에서도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받들고 있음. 우리 인민이 조국을 위해 것처럼 헌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기 때문임.
- 김정일의 애국주의는 우리 공화국이 비상한 속도로 전진비약하며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
- 김정일애국주의에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이 구현해나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다 담겨져 있음.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야 함.
- 우리 힘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함.
-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혁명의 부름임.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맹렬히 벌려나가야 함.
-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경제발전에 매진” 촉구

■ 주요내용(2.18, 노동신문 정론)

- 정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마산포부두에서 배길로 수십리를 더 가야 보이는 섬, 조선서해의 많은 섬중의 하나일뿐 유별한 것이 없던 이 섬이 오늘은 기적창조의 시대를 벅차게 안아볼수 있는 하나의 축도가 되었음.
- 그것은 섬에 자리잡고있는 정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몇해 사이에 327hp 《황금해》호계렬의 만능어선9척을 포함한 10여척의 현대적인 배들을 자체의 힘으로 무어낸 것을 비롯하여 경이적인 기적들을 련이어 이룩하고 있기 때문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 자력갱생, 간고분투! 빈터에서 시작한 조선혁명을 필승의 위업, 기적의 대명사로 되게 한 원동력이었음.
- 이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도, 《벽돌 한장 성한 것 없는》이라는 말로 전해지는 전후의 참혹한 폐허에서도 제힘으로 일떠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안아 올리지 않았던가.
- 세월은 흘러 세대는 바뀌었어도 위대한 이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적과 비약의 원동력, 번영의 보검으로 되고 있음.
- 바로 그 정신이 불길치고 투쟁의 기치로 나뉘기는 한 내 조국은 어떤 시련의 난파도도 정복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인 것임.
-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당이 안겨준 하나의 정신,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는 바로 이것이 위대한 단결의 성새를 이룬 내 조국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혁명의 불패의 위력이 있음.
- 어디서나, 누구나 애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처럼 자력갱생의 기치를 펴며 날리며 자기들의 일터를 제힘으로 보란듯이 빛내이자.
- 이 땅 어디에 살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 녀으로 받들며 그것으로 조국의 전진을 담보하는 애국자가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일터가 사람을 빛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국자가 일터를 빛내이는 것임.
- 조국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는 자기의 초소와 일터를 온녀으로 사랑하며 누가 보건 말건 묵묵히 받드는 사람임.
- 왜냐하면 조국은 수천수만의 초소와 일터로 이루어져있으며 조국은 이 땅의 수많은 초소와 일터의 전진과 함께 비약하고 승리하기 때문임.

- 당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한개 단위를 기어이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훌륭히 빛내이겠다는 일군의 각오와 투지만큼 일터가 전진하고 비약함.
- 모든 종업원들이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일에 헌신하도록 하며 그 길에서 값 높은 애국의 삶을 빛내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임.
- 왜냐하면 이 땅의 일터들은 몇몇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일터를 지켜선 모든 공민들의 애국심과 헌신의 열도만큼 전진하고 비약하기 때문임.
- 일터의 모든 성원들이 집단적 혁신의 봉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써도 대신할 수 없는 단위의 위력, 자력갱생의 근본동력으로 됨.
-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정하고 대오가 계속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는 것은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임.
-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함.
- 우리 일군들이 지닌 애국의 신념과 함께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집단의 힘을 최대로 발양시킬줄 아는 능숙한 조직력과 지휘능력,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일군의 실력의 높이만큼 단위가 비약함.
- 조국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음.
-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누리에 빛발치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어디서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한번 신들메를 조이고 힘차게 내달려야 할 결정적인 시기임.
-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네번째 해이다. 오늘의 한걸음에 천백배의 힘과 용맹을 실으며 누구나, 어디서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림.
- 나의 초소, 나의 일터는 람홍색공화국기 나뭇기는 조국의 한 부분임.
-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우리 조국, 우리 국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은 바로 나의 초소, 나의 일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하나의 제품, 하나의 창조물도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빛내이는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게 함.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

■ 개 요

- 김정일 ‘저작’ 발표 45주년,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2.19, 노동)
- 제목: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신 걸출한 령도자>

■ 주요 내용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김정일 동지가 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한 45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음.
- 1974년 2월 19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 임무를 비롯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기념비적 문헌임.
- 사상적 일색화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혁명대오 안에 이색적인 사상이 존재하면 사분오열되게 됨.
 -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목적과 지향,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될 수 있음.
-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한 사상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실무적 조치나 강요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성원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월한 사상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음.
-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가 실현되는 과정은 모든 사회 성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혁명전사로 준비해나가는 과정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우리 국가는 세상에 들도 없는 공고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 수 있었음.
-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는 길에 쌓아올린 장군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최고령도자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임.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

■ 개 요

- "강국의 자존심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서 온다"며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2.20, 노동)
- 제목: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 주요 내용

- 우리 혁명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우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는 것임.
- 자주성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단결력이 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과 같은 국풍들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부강조국을 건설하여 오는 과정에 형성된 우리의 고유한 국풍들임.
- 우리 당은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고 대중의 혁명적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음. 혁명적 진군에 총매진하도록 하자면 이미 형성된 국풍들을 적극 살리고 새로운 국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 존중하는 준법기풍을 확립하며 국화와 국수, 국조,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들을 잘 알고 애호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임.
 -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관점, 보신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저촉되는 락후한 사상의 표현임. 이러한 현상들을 뿌리 뽑고 온 사회에 사상교양사업을 벌리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로 나섬.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데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발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승화·발전된 것임. 전체 인민이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발양하도록 하여야 함.
-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혁명적 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임.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건설 위한 7만산발파 진행

■ 주요 내용(2,21, 노동신문)

-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7만산발파가 19일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지난 1월 5만산발파에 이어 2월에 또다시 올린 7만산발파의 장엄한 포성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결사관철하려는 함경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다시금 보여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 골재보장선행에 언제건설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팔향언제와 가까운 지역에서 7만산발파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였음.
- 도당책임일군들은 현장지휘부력량을 강화하고 압축기와 정대, 정알을 비롯하여 발파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데 힘을 넣었음.
 -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작업장 가까이에 접근시켜놓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게 하였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돌격대들은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지난 시기 발파경험에 기초하여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 도입하였음.
- 도당위원회와 청진시 송평구역,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 단위에서 발파준비를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음.
-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기존공식을 타파하고 굴진속도를 높여 수십일이 걸리던 발파준비를 10여일 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음.
-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7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세드높이 골재생산과 언제콘크리트치기 실적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음.

‘전력생산 증산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동’ 강조

■ 주요 내용(2.22, 노동신문)

- 경제건설대진군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음.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는 오늘 그 어디서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전력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 전력문제해결은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강화하고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서 관건적 고리임.
- 전력생산을 추켜세워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며 끊임없는 생산장성을 이룩할 수 있음.
- 철강재와 비료, 세멘트와 기계설비, 화학제품과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전력공업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임.
- 전력증산의 동음이자 인민경제 활성화의 숨결이고 경제강국 건설의 활력임.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었음.
 - 전력생산을 확고히 앞세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며 의지임.
- 각지 화력발전소에서는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들을 질적으로 보수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제때에 대책을 세워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함.
 - 발전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석탄소비량을 극력 줄이면서 호기당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함.
 - 보이라들에 고온공기연소 안정화기술을 받아들이며 산소에 의한 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확대도입하여 전력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와야 함.
- 수력발전소들에서도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의 보수정비를 제때에 진행하여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고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함.

-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조수력과 풍력,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함.
 - 송전계통에서의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전력관리체계를 전기절약형 관리체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함.
-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에너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전력 수요를 자체로 풀어나가야 함.
 -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함.
-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화력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한 물동을 우선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멈춤없이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함.
-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전력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첨입식, 집초식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냈다는 높은 책임감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전력증산으로 당의 령도적 권위를 결사 옹위해나가도록 하여야 함.
 - 모두다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나가자.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

■ 개 요

- “대외적 환경과 생활조건 좋아질수록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2.22, 노동)
- 제목: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 주요 내용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임.
-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진적인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생활양식이 있음. 맹목적으로 강요되는 부르조아 생활양식과는 달리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근로대중에 의하여 자각적·의식적으로 준수됨.
- 온 사회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은 적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임.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우월성과 그 확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사업하고 생활해 나가야 함.
-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 나갈 것을 요구함. 대외적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조건이 좋아질수록 분발하여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인민만이 광휘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
 -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지금 이야말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투쟁 기풍,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기풍, 왕성한 사업 의욕과 정열에 넘쳐 일하는 기풍을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 기풍, 생활 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쳐야 할 때임.
-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생활해 나갈 것을 요구함.
 - 특히 새 세대 청년들 속에서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자진하여 달려 나가고 영예군인들의 한 생의 길동무가 되는 것과 같은 소행들이 끊임없이 발양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임.
-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또한 모든 사회주의 근로자들이 문화적으로 생활해 나갈 것을 요구함.
 - 사회생활의 남아있는 낡은 생활관습과 비문화적인 요소들을 말끔히 없앨 때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문명한 나라로 빛내여 나갈 수 있음.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함.

증산투쟁과 함께 “절약사업 강화” 강조

■ 주요 내용(2.23, 노동신문)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부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력갱생대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 가능한 모든 예비를 찾아 리용하여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절약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임.
 - 일터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가정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종이 한 장, 한조각의 천도 모아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애국자임.
- 증산절약투쟁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 원료와 연료, 자재와 설비임.
- 내부예비동원사업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면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걸린 문제를 적지 않게 풀수 있음.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부 예비동원과 절약사업을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함.
- 증산절약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 한토막의 철근, 한g의 세멘트, 한 방울의 물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길 줄 알고 극력 아껴 쓰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임
- 우리나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수매기관들이 꾸려져 있음.
 - 수매 받은 파고철, 파지, 파고무, 빈 병, 파유리, 헌 천같은 것과 산열매, 산나물, 약초를 비롯한 지방특산물들을 제때에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모든 동, 인민반에서 수매사업에 대한 해설 선전을 잘하여 누구나 이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함.

-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로력과 원가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울 때 폐물도 보물로 전환시키고 하나에서 열, 백의 리득을 얻을 수 있음.
 - 면적절약형,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공장으로 건설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여야 함.
 - 폐기물들을 재생리용하는 것은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가짐.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추세에 맞게 각종 폐기물을 리용하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시켜나가야 함.
-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일군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는 내부예비동원과 절약에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
 - 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야 함.
- 로력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로력 량비를 없애야 함.
- 자재접수와 보관, 공급과 소비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귀중한 자재들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켜 증산절약사업이 정상화, 생활화되게 하여야 함.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선거자 명부 공시

■ 주요 내용(2.24,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하였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작성된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되었음.
-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요건 강조

■ 개 요

-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미풍 발휘, 비도덕적·비문화적 현상 통제, 일심단결, 책임 일꾼들 역할' 강조(2.24, 노동신문)
- 제목: <우리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

■ 주요 내용

-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것임.
-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사랑과 헌신이 사회에 지배하여야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될 수 있음.
- 사회주의문명건설은 결코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건축물을 일떠세우는 것만이 아님. 전체 인민이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더욱 세련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투쟁 목표임.
- 자본주의사회는 아무리 겉보기에 현란하여도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 도덕적 타락분자들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사회의 진면모를 감출 수 없으며 언제 가도 문명사회로 될 수 없음.
-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사람들의 도덕적 품모도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임. 사람이 일단 정신·도덕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면 억만금으로도 고칠 수 없으며 도덕이 결핍된 사회는 취약해지기 마련임.
- 중요한 것은 우선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는 것임.
- 모든 사람들이 초소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다 같이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한 집안 식솔처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음. 오늘 당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구현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적극 도와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풍이 날로 높이 발양되고 있음.
-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새기고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도덕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회주의문명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위한 노력 강조

■ 개 요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 강조(2.25, 노동신문)
- 제목: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주요 내용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뭉친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치는 역사적 계기로 됨.
- 이번 선거는 인민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의 위업에 충실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의 대표들로 최고주권기관이 꾸려질 때 공화국 정권의 혁명적·인민적 성격이 뚜렷이 과시될 것임.
- 앞으로 선거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음. 모든 선거자들은 불패의 강국, 위대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함.
- 모든 공민들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의 내용을 잘 알고 철저히 지켜야 함. 온 나라에 선거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함.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의원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선거에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함.

김정은 베트남 방문 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

■ 개 요

-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2.26, 노동신문)
- 제목: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을 힘 있게 과시하자>

■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끓고 있음. 각지의 일군들이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화선식 지휘를 하고 있음.
-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풍임.
-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걸쳐 진행한 외국 방문의 나날에 발휘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품모는 온 세계를 경탄시켰음. 전체 인민이 조국에 돌아올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 있게 벌리었음.
- 오늘도 인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활동 보도에 접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의 날씨 상태를 알아보며 삼가 축원하고 있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총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고 있음.
 - 교대를 마치고 갯을 나서던 송남청년탄광 청년갱의 탄부들은 즉석에서 갯으로 걸음을 되돌리었으며 수송전사들 속에서는 한승무 더 하겠다, 물동을 더 달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음.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오늘의 하루 하루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수놓아 가야 함.
 - 그 어느 때보다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자기 단위에서 사소한 비정상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함.
- 각급 당조직들은 온 나라가 애국충정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함.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이 최대로 발양되게 하여야 함.

‘3.1 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 개 요

- 3.1인민봉기 100돛기념 사회과학부문토론회가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 관계부문의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참가

■ 주요 내용(2.28, 중앙통신)

- 3.1인민봉기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처음으로 벌린 거족적반일항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추동한 애국적 장거였음.
- 일제의 식민지폭압통치를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벌어졌던 3.1인민봉기의 력사적 의의와 교훈, 선인민이 발휘한 애국적 기개에 대하여 해설론증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범죄적진상을 폭로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음.
 - 토론자들은 주체8(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시작된 봉기가 전국을 휩쓸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연해주 등 조선 사람이 살고있는 모든 지역으로 급속히 파급되는데 대해 밝혔음.
 - 평양사람들은 거족적인 반일봉기에서 선봉적 역할을 함으로써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자랑스러운 자욱을 아로새기였다고 강조하였음.
- 청년학생들이 3.1인민봉기의 발단을 열어놓고 봉화를 지퍼올리는 선각자, 반일항쟁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시키는데서 선봉결사대의 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말하였음.
- 3.1인민봉기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삼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범죄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로 까박혔음.
- 토론자들은 조선인민은 피로 얼룩진 일본의 과거범죄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토론회에는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 관계부문의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음.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

■ 주요 내용(2.5, 중앙통신)

-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지난해 남조선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9600여억 원이었는데 미국은 올해 분담금으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여기서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이 빼여져나가고 있음.
- 지금 보수패당은 괴이하게도 《방위비분담금》문제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엇나가면서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역적행태를 일삼고 있음.
- 보수의 총본산인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 《재향군인회》 등 어중이떠중이들은 《남북협력기금사업비를 전년보다 증액편성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양보하지 않는것은 한미동맹을 등한시하는 태도》라고 떠들어대며 련일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섬겨바쳐야 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것까지 요구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음.
- 동족과의 교류협력사업은 《퍼주기》로 매도하는 반면에 외세를 하내비처럼 섬기며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고 고아대는 보수패당이야말로 사대굴종에 미쳐버린 자들이 아닐 수 없음.
- 더우기 조선반도정세가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전환되고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음.
-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고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으니 이를 보고 쓸개빠진 짓거리라고 해야 할 것임.
-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에 갈수록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동족을 해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역적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을 수 없고 민족의 조국통일운동도 활력 있게 벌려나갈 수 없음.
-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보수패거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할 것임.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F-35A 실전배치' 비난

■ 주요 내용(2.6, 노동신문)

- 남조선군부세력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얼마전 남조선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군사적위협과 안보변화에 대비》한다는 명목 밑에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음. 그에 의하면 남조선군부세력은 이전계획보다 13.6%나 늘어난 방대한 액수의 군사비를 탕진하려 하고 있음.
- 또한 《3축타격체계》의 명칭을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체계》로 바꾸고 이를 위해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에 나서려 하고있음. 남조선군부가 스텔스전투기 《F-35A》를 오는 3월부터 실전배치하고 각종 외국산 무장장비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도 이미 공개되었음.
-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공격적성격이 명백히 드러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어처구니 없는것은 조선반도정세흐름에 배치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놀음이 《자체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것임.
- 남조선군부의 행위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인 도발임.
-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행동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반입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어왔음.
- 지금 온 민족과 국제사회는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조선반도 전지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음.
-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리행하여 삼천리강토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겨레의 한결 같은 목소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는 대치지역에 나와서는 군사적긴장완화의 흥내를 피우고 돌아앉아서는 상대방에 대한 타격을 노린 무력증강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음. 이런 이중적인 처사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 남조선은 이미 극동최대의 화약고로 공인되어 있음. 내외여론들은 남조선군부가 현정세하에서 과잉무장장비들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실이 이러할진대 남조선군부세력이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내 보인 것임.
- 남조선군부는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무력증강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및 F-35A 도입 비난

■ 주요 내용(2.13, 노동신문)

- 남조선군부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얼마 전 남조선군부 인물들은 공군 1전투비행단과 해군 3함대사령부 등을 돌아다니며 대비태세점검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 강원도 화천일대에서 사단급의 《혹한기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았음. 이것은 대화와 평화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협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들을 그만두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적극 조성해나가야 함.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
- 지난해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조선반도에는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도래하였음.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사태 발전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때만이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남조선군부의 호전적인 행동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임.
-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군부는 정초부터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에 나서고 있음. 남조선군부가 방대한 액수의 군사비를 탕진하여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실현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임.
- 그들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체계》의 간판을 단 공격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는 3월부터 스텔스전투기 《F-35A》를 실전배비하려 하고 있음. 남조선군부의 이번 대비태세점검놀음과 사단급 《혹한기훈련》은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의 연장선우에 있음.
-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북과 남이 온 민족 앞에 한 약속임. 누구도 그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군사적 도발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함.
-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땅에서 평화를 위협하며 대결기운을 고취하는 온갖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임.

보수정당 등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안보붕괴' 주장 비난

■ 주요 내용(2.13, 중앙통신)

-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악을 쓰며 고아대고 있음. 리유인즉 합의서가 《안보붕괴》를 불러온다는 것임.
- 한편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이 뿌리깊이 박힌 전직 국방부 장관들을 비롯한 군부의 퇴물들은 《예비역장성단》이라는 극우보수단체를 조작하고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할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2월중 합의서폐기라는 《시한부》까지 정해놓았음.
- 《안보붕괴》니, 《안보파탄》이니 하는 이들의 궤변들이야말로 이 세상 밝은 하늘 아래서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생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음.
- 누구나 공인하는바와 같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 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임. 지난해 합의서 리행을 위한 의의 있는 첫 걸음도 떼어져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서 진전이 이룩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사코 부정하고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정면도전하는 쓰레기들은 과연 어떤자들인가. 너절한 《안보장사》놀음으로 민중을 기만하고 비루한 정치적 잔명을 연명해온 정치협잡군들임.
- 극단한 동족대결정책과 외세의존정책아래 민족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 대결광신자들임.
- 이자들의 목적은 명백함.
- 동족상쟁을 끝장내게 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기어이 없애치움으로써 지금까지 대결로 생존공간을 유지해온 저들의 숨구멍을 틔우고 기울어져가는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하나 건져보려는데 있음.
-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민족의 안전을 여지없이 파탄시키는 장본인들이 도리어 《안보가 무너진다.》고 아부재기를 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음.
- 북남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은 겨레의 안녕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소중한 성과물인 동시에 반드시 리행해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임.
- 이를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보수야당이건, 군부퇴물이건 하나같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할 반역의 무리들임.
- 남조선각계층은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대결과 전쟁의 과거로 회귀 시키려고 악을 써대는 천하역적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임.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진행

■ 주요 내용(2.14, 중앙통신)

-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이 참가하는 공동행사인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이 12일과 13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음.
- 연대모임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겸 서기국장, 리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음.
- 첫 행사로 진행된 북, 남, 해외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자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대표자회의에서는 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음.
-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와 각 계층 단체별상봉모임, 해맞이결의모임에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이정표인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음.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난 '호소문' 발표

■ 주요 내용(2.14, 중앙통신)

-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보수적폐의 아성인 《자유한국당》을 단호히 매장할 데 대해 강조하였음.
- 호소문은 민심의 엄정한 심판 속에 흉물스러운 《새누리당》의 간판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어달고 기가 죽어있던 역적무리들이 오물더미의 독버섯처럼 되살아나 초불민심에 도전해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였음.
- 전국민적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특대형 범죄를 일삼은 보수《정권》을 국민의 명령으로 단호히 심판하고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징벌하였던 초불민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단죄하였음.
- 호소문은 보수의 재결집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짓밟개버리는 것은 민심의 요구이며 시대의 지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 오늘의 시국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각계층 민중이 총궐기하여 불의와 적폐의 온상이며 반역의 소굴인 《자유한국당》을 완전파멸시키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음.
-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평화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음.
- 보수적폐청산의 담당자, 《자유한국당》파멸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임.
- 호소문은 전 국민의 일치동참과 가열찬 투쟁으로 《자유한국당》을 단호히 매장하고 정의와 진리의 새 사회,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역사를 힘차게 마중해나가자고 지적하였음.

‘민화협’ 고발장, 자유한국당 비난

■ 주요 내용(2.16, 중앙통신)

- 민족화해협의회 고발장
-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한 때로부터 2년이 되었음.
-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바꾸어달았으나 사대매국적체질에서 변화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음.
 - 당시 남조선정국이 혼란된 틈을 타서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의 배치 결정을 발 벗고 지지해 나섬. 미국에 전술핵무기배치를 간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특사위원단》이라는 것을 급파하였음.
 - 지난해부터 진행된 미군유지비분담을 위한 협상에서 남조선당국에 더 많은 유지비를 낼 것을 강박하는 미국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은 돈문제가 아니다》, 《한미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린청을 돌구었음.
 -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독도강탈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데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양보할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력설하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과의 《동침》타령까지 내뱉고 있음.
- 남조선의 력대 보수정당들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지 않은 패당이 없었지만 그 도수와 광기에 있어서 최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패거리임.
 - 있지도 않은 《북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워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음.
- 《한지붕, 두 가족, 여러 살림》이라는 괴이한 구조를 가진 당내의 당권 쟁탈전, 파벌 싸움은 그야말로 치렬함.
- 위험이 닥쳐오면 몸뚱아리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처럼 최악이 드러나 민심의 규탄과 준엄한 심판이 닥쳐올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 버리듯이 물갈이흉내를 피우는 것이 바로 보수역적당의 특기임.
- 조선반도정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확고히 전환하고 있는 오늘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음.
- 민심에 역행하고 대세를 거스르며 씻을 수 없는 대역죄만을 덧쌓아온 희대의 반역집단이 박○○ 역도와 함께 력사의 무덤에 순장되는 것은 필연적임.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 개 요

-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남-북-해외 간 FAX로 진행(2.21,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제19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음.
- 범민련은 해내외 각계층과 굳게 련대하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함.
- 1. 범민련은 올해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갈 것임.
 - 범민련은 역사적인 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적극 지지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며 북남 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전민족적인 흐름으로 되게 할 것임.
 - 선언리행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며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방해하는 온갖 대결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해나갈 것임.
- 2. 범민련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임.
 - 반전평화운동의 선봉에서 달려온 범민련은 북남관계발전에 가장 큰 장애로 되는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전쟁의 불안이 없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관계가 평화의 기반우에서 곧바로 전진해나가도록 할 것임.
 -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 채택된 새로운 시대에 배치되게 외세와 함께 벌려놓으려는 합동군사 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과 같은 일체 군사적 대결책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임.
- 3.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북남 협력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
 -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부분적변화가 아닌 전면적대전환을 통하여 하루빨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거래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북남협력교류활동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벌려 온 거래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임.

- 당면하여 북측에서 뜨거운 진정과 동포애적립장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표명한데 대해 다시금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그것이 응당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임.
- 4. 범민련은 당파와 소속,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역사적인 북남선언리행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갈 것임.
 - 범민련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광범한 각계각층과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단합과 자주통일의 대화가 삼천리강토에 용융히 흐르게 할 것임.
 - 새로운 4.27시대에 맞게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는 해내외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의 폭넓은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
 -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평화적통일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
- 5. 범민련은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범민련조직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임.
 - 범민련은 올해에도 지역과 기층조직을 강화해나가면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대중적지반을 더욱 확대하고 대오를 부단히 늘여 나갈 것임.
 - 범민련은 통일운동의 유리한 정세를 적극 활용하면서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과 남, 해외 3자련대를 통하여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 범민련의 위상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갈 것임.
- 우리 모두 더욱더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 밑에 평화와 번영,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9년 2월 20일

'5·24 조치' 해제 주장

■ 개 요

- '5·24 조치' 등 "교류협력 저해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제거" 주장(2.26, 우리민족끼리)

■ 주요 내용

-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음. 이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면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함.
-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북남협력교류를 가로 막는 온갖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
-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선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이 《5. 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함.
-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에 백해무익한 온갖 반통일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담보를 마련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섬.
- 지금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그를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음.
-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지원법》 등 분야별 《특별법》들을 제정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세분화하여 사회문화, 경제, 인도주의 분야를 비롯한 부문별 협력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담보를 마련하려 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적폐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 것임.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반통일세력 투쟁' 주장

■ 주요 내용(2.1,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이 1월 29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을 하루 빨리 매장해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음.
- 담화는 남조선《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북의 약속은 명색뿐이다.》,《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고 고아대며 《남북협력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망언을 뱉어냈다고 규탄하였음.
- 담화는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살아서 숨 쉴 자격을 상실한 천하의 역적배들이 아직까지 살아 북남관계개선흐름을 차단하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고 날뛰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 역대적으로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대업을 악랄하게 혈뜯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음.
-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대결광신자들을 영원히 박멸하기 위한 투쟁은 온 겨레의 운명을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임.
-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룩하자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하루빨리 매장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 개 요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2.2,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1월 31일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음.
- 담화는 연합회의가 호소한대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리행하는데 민족의 살길이 있으며 우리 재일동포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가속화해나갈 것임.
- 총련은 북과 남,해외의 련대연합을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도전과 방해도 반대배격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 것임.
- 총련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며 사상과 정견, 단체, 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동포들을 평화와 번영,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합세시켜 나갈 것임.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입장 발표

■ 개 요

-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정부와 인민의 자주적 의사 존중" 입장 발표(2.3,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베네수엘라정세와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1월 23일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결과를 무효로 선포하고 립시대통령으로 자처해나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음.
- 26일 베네수엘라문제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베네수엘라사태는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로 번져지고 있음.
- 주권국가의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거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외부세력의 그 어떤 시도도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임.
- 베네수엘라문제는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의 자주적의사와 결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임.
-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전세계 인민들은 언제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의 편에 서있을 것임.

미국에 “공정한 제안과 올바른 협상자세” 촉구

■ 주요 내용(2.4, 우리민족끼리)

- 지난해 싱가포르의 《세기적인 만남》에서 채택된 6. 12조미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하루빨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인류의 기대와 념원은 날이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음.
- 다 아는바와 같이 세계언론계는 연말년시를 맞으며 일치하게 역사적인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을 《2018년 최고뉴스》로 크게 보도하였음.
- 이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었음.
- 지난해에 있던 역사적인 첫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6. 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조미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임.
-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였고 북부핵시험장폐기와 같은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왔음.
-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자명함.
-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음.
-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립한다면 반드시 조미 두 나라는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임.
-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세계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함.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 귀국 관련 일본에 사의 표시

■ 개 요

-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방조를 제공한 일본에 사의 표시 (2.4,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최근년간 조난당하였던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국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인도주의적방조를 제공해준 일본당국에 해당 경로를 통하여 사의를 표시하였음.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 비난

■ 주요 내용(2.7, 노동신문)

- 지난해 12월 조선동해상에서 남조선해군함정에 일본해상《자위대》의 순찰기가 바짝 접근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음. 일본해상《자위대》순찰기의 이런 위협적인 저공비행은 지난 1월 23일에도 있었음.
- 일본해상《자위대》순찰기의 련이은 위협비행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남조선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음.
- 남조선에서는 일본해상《자위대》순찰기의 근접비행이 도발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음. 일본은 《위협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느니, 《경계 및 감시활동을 한것뿐》이라느니 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남조선당국에 분별있게 처신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남조선일본관계가 외교관계수립이후 최악의 상태이라고 하면서 일본해상《자위대》순찰기의 위협비행사건에는 남조선의 반발을 유도하여 지지력을 끌어올리고 재무장과 헌법개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보려는 아베정권의 정치적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하였음.
- 일본반동들이 《북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그것을 구실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에 광분해온 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임.
- 최근에 발생한 일본해상《자위대》순찰기의 위협비행사건은 남을 걸고들며 제리속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체질화된 악습의 산물이며 갈수록 무분별해지고 있는 령토팽창야망에 따른 고의적인 도발책동임.
-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깨버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가 더욱 날날이 드러났음.
- 내외여론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수위를 끌어올려 군국주의부활과 《자위대》강화에 유리한 정치적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음.
- 항상 이웃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고 남을 해치는데 이골이 난 일본반동들이야말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암적존재임.
-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터치면서 반일기운을 계속 고조시켜나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온 겨레는 북과 남을 가림 없이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 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 것임.

UN 주재 일본 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기자회견 비난

■ 주요 내용(2.9, 중앙통신·민주조선)

- 얼마 전 유엔주재 일본대사라는 자가 정기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대조선제재결의의 철저한 리행을 각국에 요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음.
- 9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이 제 몸값을 올려보려고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왜가리청을 돋구었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은 조선반도문제해결과정에 방해를 놓지 말고 입다물고 구경이나 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심리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 남들이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눈뜬 소경이 되어 입건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일본의 추태는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 일본이 아무리 대조선 제재강화를 부르짖으며 정세를 악화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해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음.
- 태평양이 지리적으로 일본을 대륙과 동떨어진 섬나라로 만들었다면 재침야망과 대세에 대한 무지는 일본을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음.
- 일본이 영원히 《외토리섬》으로 되는 비극을 면하겠거든 이제라도 대세를 따라야 할 것임.

미국 보수진영의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 견제

■ 주요 내용(2.11, 우리민족끼리)

- 최근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보수세력들이 조미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고 있음.
- 지난 1월 29일 미국가정보국 장관을 비롯한 정보당국자들은 그 무슨 청문회라는 데서 《북이 여전히 핵개발에 전념하고있다.》,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음. 미의회조사국도 최근 발간한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그동안의 외교적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이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외교적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떠들어댔음.
- 한편 하바드종합대학의 전문가그룹은 《충분한 보유》, 《지속적인 생산》, 《핵기술이전》 따위의 내용들로 일관된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지금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북의 비핵화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미국내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우호적인 대조선립장에 제동을 걸고있다.》, 《정보기관수장들의 발언과 의회보고서, 전문가그룹의 우려는 2차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더욱 확산시킬수 있다.》고 평하고 있음.
- 지금 내외는 새해에 들어와 조미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있는 데 대하여 환영하면서 보다 진전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 그런데 이와는 배치되게 미국내 보수세력들은 온갖 랑설과 가짜정보를 내돌리며 조미협상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발악하고 있음.
- 이자들에게는 미국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꼬물만한 관심과 책임감도 없으며 트럼프행정부의 외교정책에 흠집을 내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야심을 실현해보려는 흥심만 있음.
-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 정치적반대파의 룡락물로 될 수 없음.
- 조미관계개선은 미국의 국익과 안전보장에 부합되는 중대사로서 그것이 파탄되는 경우 반대파들의 처지와 운명도 결코 편안치 못할 것임.
- 미국내 보수세력들은 대조선적대시에 눈이 멀어 랑전시대의 늪에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현 조미협상국면이 저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함.
- 미행정부는 반대파세력에 휘둘리우다가 조미협상을 교착에 빠뜨리였던 지난해의 교훈을 명심하고 결단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 연차총회

■ 주요 내용(2.11, 중앙통신)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연차총회가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 총회에는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일군들과 일제의 과거범죄피해자들, 유가족들, 학자들이 참가하였음.
- 총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전국적 범위에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진상에 대한 조사사업과 일본당국의 비렬한 과거청산회피책동을 폭로단죄하는 활동이 활발히 벌어진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그들은 일본이 조선과의 과거청산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랍치》나발을 불어대면서 총련과 재일동포사회를 범죄시하고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데 대해 까발렸음.
- 일본이 과거사를 옳바로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기본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3.1인민봉기 100돐이 되는 올해에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릴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총회에서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범죄들을 류형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릇된 역사외곡과 군사대국화책동을 반대하는 국내외의 여론을 높여나가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음.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

■ 개 요

- 재일동포 개인 필명의 기사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노동신문/김정은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

■ 주요 내용(2.13, 노동신문)

-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예상 밖의 파격적인 결단으로 세상을 놀래였음. 사실 강국의 중대징표를 단숨에 달성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핵전쟁을 걸어오는 이상 이를 불로써 다스리는 것은 피할 리유도 두려워할 리유도 없는 정정당당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라고 으시대면서 폭언들을 쏟아내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니, 《코피작전》이니 하는 것을 공언해 나선 미국의 도발책동은 이미 극한점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북녘의 민심은 천금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불타는 의지로 끓고 있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 보고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장래를 두고 누구보다 깊은 사색을 이어갔음.
- 총포성 없는 전쟁, 평화 없는 정전이 긴긴 세월 지속되어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일 이 땅에 전쟁이 터진다면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다시 펼쳐지고 아물지 않은 겨레의 상처우에 처절하고 싸늘한 전란의 재가 덧쌓이게 될 것이었음.
-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평화는 전체 조선민족의 가장 열렬한 소망인 동시에 민족구성원들의 삶과 가치,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성한 것임.
- 북과 남의 인민이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승리, 사랑하는 조국강토에 한 점 흠집도 내지 않을뿐더러 통일강국의 창창한 앞날까지 담보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실 구상을 안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결단을 내린 것임.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조선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선언,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일파만파로 격랑의 도가니를 일으켰음.
- 겨레의 생명과 리익, 평화를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통 큰 결단을 내린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대한 사랑의 힘은 몇 십 개의 수소탄을 초월하는 것이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열화같은 사랑은 미친듯이 질주하던 핵전쟁마차를 짓뭇개버리고

차갑게 경색되었던 북남관계도 봄눈처럼 녹여버렸으며 이 땅에 거창한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대하가 사뭇쳐흐르게 했음.

- 목적이나 결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나 인정함. 허나 김정은 위원장처럼 사랑으로 전쟁을 길들이는 위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급부상시키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위인은 역사에 없음.
-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선택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조국애로부터 출발함. 지난해와 올해 설날아침에 발표된 신년사 그리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공세적으로 취해진 파격적이며 실천적인 행보들, 이 모든 것은 평화에로 향한 발걸음이 확고부동한 목표와 뚜렷한 전략을 가진 《충격적인 승부수》임을 강조함.
- 어리석게도 대조선제재가 평양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눈먼 사람들에게 2015년의 8월을 다시금 상기시킴. 그때에도 세계는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시계를 지켜보고 있었음. 당시 호전적인 미군부는 남조선을 내세워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갔음.
-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여 조선반도에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발기도를 제지시키었으며 동시에 주동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심으로써 전쟁의 난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전무혈의 기적적인 승리를 안아왔음.
- 총 한방 쏘지 않는 강력한 평화공세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의 역센 힘으로 평화의 대문을 열고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음.

북-러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 개 요

- 北 대외문화연락위 - 러시아 문화성 간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 주요 내용(2.13, 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로씨야련방 문화성사이의 2019년-2020년 문화협조계획서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되었음.
- 조인식에는 조선측에서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주조 로씨야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숙과 알렉산드르 마제고라가 계획서에 수표하였음.

리용호 외무상-팜 빙 밍 베트남 외무상 회담

■ 주요 내용(2.13, 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회담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팜 빙 밍 월남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은 김일성 주석과 호지명 주석께서 마련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 시켜나갈 데 대하여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일치를 보았음.

대외정책 관련,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및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행위 불허' 강조

■ 주요 내용(2.13, 중앙통신)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비상히 높아진 우리 국가의 국제적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적 입장을 명시한 강령적 지침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친선임. 여기에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이 반영 되어 있음.
-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혁명적립장임.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오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승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중국방문으로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승화발전시킨 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관계발전을 대단히 중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와 결심을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계기임.
 -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세차례에 걸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과 쿠바공화국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음.
 - 우리 나라와 여러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나날이 강화 발전되고 있음.
-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립장임.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이라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가장 우월하고 정당한 정책임.
 - 지난날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나라라고 하여도 오늘날에 와서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결심이 서있다면 함께 손잡고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임.

- 우리 국가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임. 우리 공화국은 침략과 전쟁, 내정 간섭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대응하여 왔음.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많은 나라들과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갈 것을 희망하며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공간을 통하여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키려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
- 반동적 사상문화침투책동은 우리 국가에 대한 은폐된 적대행위이며 우리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려는 비렬한 행위임. 때문에 우리 국가는 이색적이고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고 있음.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구현해나가고 있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대외정책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음.
- 지난 기간 우리 나라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하였음.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강화하였음.
- 지난해에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과 특사,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는 세계가 우리 국가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음.
-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더욱 과시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

■ 개 요

-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2.19, 중통)
- 제목: <헌법개정이자 전쟁국가부활에로의 길이다>

■ 주요 내용

- 평화 파괴 세력으로서 일본의 진면모가 두드러지고 있음.
 - 얼마 전 수상 아베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직도 자위대를 무근거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였음.
 - 그는 지난 10일 진행된 자민당대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는 위헌론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에 앞서 자민당의 헌법개정 추진본부장도 기자회견에서 《9조의 개정은 당에 있어서 최우선과제》라고 력설하였음.
- 헌법을 뜯어고쳐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해보려는 전쟁광증의 발로임.
- 아베정권 출현 후 일본반동들은 전쟁국가 건설을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규정을 추가하여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분신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하고 있음.
- 이미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 해외 군사 진출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놓았음.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 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장에 날뛰면서 《자위대》의 실전화를 다그치고 있음.
- 조선반도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류에 역행하는 검질긴 침략 야욕과 그 실현으로 초래될 것은 참담한 일본의 미래뿐임.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정 파괴자인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함.

日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 발언 비난

■ 개 요

- 일본의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 발언 비난(2.19, 노동)
- 제목: <고립을 촉진하는 일본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

■ 주요 내용

- 아베 세력은 《일미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떠들어대는 등 일본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치·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음.
- 여기에는 미국과의 관계까지 나빠지면 곤 떨어진 갓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상전을 등에 업고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보자는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음.
- 일본이 이제는 《전쟁 가능한 국가》, 《보통국가》를 제창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조선 함선들에 대한 《자위대》 해상초계기의 접근 비행과 같은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음.
-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화해와 협력,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광기이며 과거 청산을 로골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인륜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오늘날 일본의 외교적 고립은 그들 스스로가 몰아온 것임. 일본이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근한 과거 청산임.
- 일본은 특대형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회피하고자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관련 미국 비난

■ 개 요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관련 미국 비난(2.20, 노동)
- 제목: <강압과 추종의 산물>

■ 주요 내용

-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당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음.
 - 미군 유지비를 지난해보다 8.2% 더 늘이기로 정식 합의하였음.
 -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음.
- 남조선 강점 미군은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혈세를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음. 남조선 강점 미군은 그렇게 받고 있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늘어왔음.
-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 운운하며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요구하였음.
- 이와 관련 남조선 언론들은 《방위비 분담금》 지출로 남조선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져들어도 미국은 개의치 않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여도 저들의 이익만 차리려 한다고 폭로하였음.
- 남조선 인민들이 이번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단죄하고 《동맹》을 구실로 더 많은 혈세를 빼앗아내려는 미국을 폭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당연함.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중국 예술인 종합공연

■ 개 요

-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 1주년, 중국 예술인 종합공연 등 진행(2.20, 중통)
 - * 참석 : 전광호(내각부총리), 박춘남(문화상), 리창근(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진군(주조 중국대사)
- 제목: <중국예술인들의 조중친선봄맞이 종합공연 진행>

■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의 첫 중국방문 1돛에 즈음한 중국 예술인들의 조·중 친선 봄맞이 종합공연이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중친선협회와 중국 문화 및 관광부, 주조 중국 대사관의 공동명의로 20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음.
- 조중친선협회 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대사관 성원들, 체류 중 중국 손님들, 화교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음.
- 중국 길림성 문화·예술대표단 예술인들은 조·중 외교관계 설정 70돛이 되는 올해에 문화 교류를 통하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정을 승화시켜나갈 지향을 담아 공연무대를 펼쳐놓았음.
- 출연자들이 부른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 《불타는 소원》은 관람자들에게 감명을 안겨주었음.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기념우표 발행

■ 개 요

-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기념우표 발행(2.22, 중통)
- 제목: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 기념우표 발행>

■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정초에 진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기념하여 우표(소형 전지 1종)를 발행하였음.
 - 소형전지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 기념》, 《주체108(2019)년 1월 7-10일》이라는 글들이 씌여져 있음.
 - 조선의 국화인 목란 꽃송이들과 중국인민이 사랑하는 꽃들 그리고 무지개 비낀 압록강의 조중친선다리와 두 나라 국기가 그려져 있으며 조선어와 중어로 《조중친선》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
- 기념우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단결 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일본에 과거사문제 사죄 및 배상 촉구

■ 개 요

- '2019년 일본시민지식인성명' 언급, 일본에 과거사문제 사죄 및 배상 촉구(2.22, 노동)
- 제목: <시급히 과거청산을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최근 일본지식인들이 도쿄에 있는 국회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2019년 일본시민 지식인성명》을 발표하였음.
 - 교수, 변호사,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 20여 명이 서명하였다고 함.
- 성명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강점은 두 민족의 역사에 어두운 부분을 남겼으며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비난하였음.
- 지난해 前 내각 관방장관 고노도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조선반도의 식민지 화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과거 죄악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민심의 요구임.
- 지난해 말 미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맥밀란보고서》에는 광도의 이전 지사였던 해군대좌 맥밀란이 일본군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실들이 수록 되어 있음.
 - 발견된 문서들 중에는 《7명의 위안부가 검진과 치료를 위해 미국 민간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담긴 광도주둔 미군사령부의 군정보고서와 사이판섬에 있던 일본군 《위안소》들을 표기한 지도도 있음.
- 조일관계 개선문제는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청산한 기초 위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것임.
- 일본 당국은 이것을 알고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하여야 함.

일본의 '핵무장화 준비' 비난

■ 주요 내용(2.23, 노동신문)

-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속에서 아베 일당이 《비핵3원칙》을 폐기해 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 있음.
 - 급변하는 조선반도 정세를 둘러싼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난데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아베 일당이 심화되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핵폭탄 개발을 시도해 온 일본은 저들이 패망한 것은 원자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떠들면서 핵무장화의 길을 닦아왔음.
 - 1965년 일본수상 사토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1969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핵3원칙〉이라는 것은 정책이 변하거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나 변경될 수 있다.》고 뼈젓기를 말하였음.
 - 1978년 3월 일본수상 후쿠다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라의 무장을 핵무기로 장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력설하였음.
 - 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 부합된다는 망언까지 하였음.
 - 2000년 5월 아베도 《소형이라면 원자탄의 보유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음.
- 일본은 이미 합법적인 핵무장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았음.
 - 2012년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원자력 리용 목적의 하나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사실상 핵무장화를 공식화, 법화해 놓았음.
- 일본 반동들은 플루토늄 저축이 과학 연구와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 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음. 순수 과학연구와 평화적인 핵 활동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량의 플루토늄이 필요 없음.
- 로씨야의 어느 한 통신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된 사실을 당국이 숨기고 있다고 한 일본신문 《재팬 타임스》 전 주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핵무기 개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도하였다고 전하였음.
- 일본이 지난 세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진주만에 대한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과거범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같음.
- 일본이 핵무장화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망의 복수를 하자는 것임.

미국의 '북미 협상 반대파' 비난

■ 주요 내용(2.24, 중앙통신)

-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협상 반대파들은 온갖 랑설과 가짜 정보로 분칠한 회의론을 류포시키며 방해책동에 매달리고 있음.
- 미 국가정보국 장관을 비롯한 정보당국자들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조직한 청문회에서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북이 여전히 장거리 핵미싸일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댔음.
- 미 하원 의장 펠로씨는 싱가포르 미북회담은 《보여주기식 회담》이었다느니, 자기는 《북을 믿지 않는다.》느니, 《북의 진짜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의 무장해제》라고 력설하였음.
- 조미 고위급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미신고 미싸일 기지설》을 내돌리던 CNN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들도 《북조선의 전략에 속고 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며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음.
-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파들은 조미협상 자체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 조미관계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는 유익한 일로 되지만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임.
- 조미협상반대파들이 퍼뜨리는 《북비핵화 회의론》에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실패로 유도하고 전반적인 대외정책에 흠집을 내어 그것을 재집권을 위한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는데 리용해보자는 흥심임.
- 미국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다나니 자기의 《정체성》마저 스스로 잃고 보수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지금의 조미협상이 반대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성과없이 끝날 경우 미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안보위협은 결코 가셔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미국의 현 행정부는 잡다한 시비질에 귀 기울이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조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라는 세기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는 《꿈》이 깨여지고 희귀하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놓칠 수 있음.

美 '블루릿지함' 부산 입항 등 비난

■ 개 요

- 미국 '블루릿지함'의 부산 입항과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참가병력 방한 비난 (2.25, 노동신문)
- 제목: <평화 흐름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 주요 내용

- 얼마 전 남조선의 부산해군기지에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의 명목하에 미7함대의 기함 《블루릿지》호가 기항하였음.
- 3월 초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의 일부가 최근 남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연습 개시 날자에 맞추어 병력 전개와 훈련 씨나리오 점검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남조선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음.
- 남조선에서의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뗀 조미관계와 북남 관계 개선의 흐름에 배치되는 위험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음.
- 앞에서는 정세완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고 돌아앉아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는 것은 내외의 우려를 자아냄. 대화와 전쟁연습, 평화와 군사적 적대행위, 관계 개선과 군사적 압박은 결코 량립될 수 없음.
- 모처럼 마련되었던 조선반도의 평화국면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들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던 과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음.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비난

■ 주요 내용(2.27, 중앙통신)

-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등 핵심사항들을 놓고 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길을 열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음.
 - 일본은 저들의 《경제력》을 요란하게 광고하는 한편 돈주머니를 내흔들면서 발전 도상 나라들의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음.
 - 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공통된 심리를 품고 있는 4개국 그루빠(도이첼란드, 인디아, 브라질, 일본)에 망라된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그를 동력으로 해묵은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음.
- 일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라임.
 - 일본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일본외교는 자주적 대가 없는 추종외교, 굴종외교임.
 - 일본은 전범국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과거 청산을 올바로 하지 않은 나라임.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그러한 만행들 중의 하나임.
- 과거 죄행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청산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겨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인류 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임.
- 초보적인 자격도 못 갖춘 주제에 주책없이 높은 곳만 올려다보는 일본에 대해 세계 민심은 조소를 퍼붓고 있음.
-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특대형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뿐임.

“일본의 역사적 죄악 총결산” 촉구

■ 개 요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성명, “일본의 역사적 죄악 총결산” 촉구(3.1, 중앙통신)
- 제목: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총결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

■ 주요 내용

- 역사에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떨친 애국적 장거로, 일제 야수들에 의한 또한 차례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으로 기록된 3.1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100년이 되었음.
- 3.1의 원한뿐이 아님.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강제연행, 강제로동범죄, 대학살 만행 등 헤아릴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들과 역사외국, 《창씨개명》, 조선어 말살을 비롯한 민족성 말살책동, 천문학적 수자에 달하는 가혹한 경제적 수탈 등 일제가 저지른 악행의 고통은 결코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온 세계가 반평화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고 있는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치가들이 앞장서 과거죄행을 미화하는 망발을 내뱉고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가 하면 《히노마루》,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합법화하였음.
-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일본사회에 복수주의적 감정을 배양하고 해외 팽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완비하여 어떻게 해서나 70여 년 전의 패배를 만회해보려 하고 있음. 이미 《자위대》의 무력은 《국제평화유지》의 미명하에 세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의 합동군사연습에 버젓이 참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간첩위성을 쏘아올리고 있음.
-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함.
- 일본이 4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억누르며 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어가고 840만여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100여만 명을 학살한 피맺힌 원한을 기어이 풀 것이며 장장 70여 년 동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재일조선인들을 박해해온데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 것임.
- 세기를 두고 쌓아온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총결산하고 우리 민족의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임.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위원장)

- (미상)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연하장 전송(2.4, 노동·중통·중방)
- 2.8. 건군절 71주년 맞이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2.9, 노동·중통·중방)
- 2.8.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2.9, 노동·중통·중방)
- (미상) 건군절 71주년 맞이 경축연회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미상) 삼지연군 구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2.10, 노동·중통·중방)
- (미상) 김녹주(평양시 서성구역 장경1동 55인민반) 할머니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2.13, 노동·중통)
- (미상)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방·중통)
- (미상) 리호성(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2.20, 노동·중통·중방)
- (미상) 김인화(룡천군 쌍학리)·유영옥(갑산군)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2.21, 노동·중통·중방)
- 2.23.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2.24, 노동·중통·중방)
- (미상)故진봉준(조선인민군 223호 수산사업소 지배인) 영전에 화환 전달(2.25, 노동·중통·중방)
- 2.26. 베트남 하노이 도착(2.27, 노동·중통·중방)
- 2.26.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2.27, 노동·중통·중방)
- 2.27. 美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단독 환담 및 친교 만찬(2.27, 노동·중통·중방·평방)
- 2.28. 美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 및 회담(2.27, 노동·중통·중방·평방)

고인호(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 2.28. 알곡과 축산물을 늘이기 위한 2018년 사회주의 경쟁 총화 회의 참석(3.1, 노동·중통·중방)

기광호(빙상피겨협회 위원장 겸 재정상)

- 2.15.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 참석(빙상관)(2.15, 노동·중통)
- 2.17.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폐막식 참석(빙상관)(2.17, 노동·중통)

김능오(평양시 당 위원회 위원장)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1.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2,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김성남(당 제1부부장)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 2.3.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참석(함흥대극장)(2.4, 노동·중방)

김수길(총정치국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시 맞이(2.9, 노동·중통·중방)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 2.1.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경기관)(2.1, 노동·중통·중방)

- 2.7.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참석(인민문화궁전)(2.7, 노동·중통)
- 2.16.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2.16, 노동·중통·평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2.1. 말레이시아 16대 국왕에게 즉위 축하 축전(2.3, 노동·중방·중통)
- 2.4. 스리랑카 독립 71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2.4, 노동·중통·중방)
- 2.8. 제32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 회의에 축전(2.8, 노동·중통·중방)
- 2.15. 세르비아 국경절 맞이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2.15, 중통)

김여정(당 제1부부장)

- (미상) 김정은 위원장,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시 동행(2.16, 노동·중방·중통)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16. 만수대예술단 음악종합공연 참석(동평양대극장)(2.16, 노동·중통)
- 2.17. 광명성절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과 담화 및 음악무용종합공연 참석(2.17, 노동·중통·중방)
- 2.18. 광명성절 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과 면담(만수대의사당)(2.18, 노동·중통·중방)
- 2.20. 광명성절 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과 담화(만수대의사당)(2.20, 노동·중통·중방)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환송(2.24, 노동·중통·중방)
- 2.23. 브루나이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2.23, 노동·중통·중방)
- 2.25. 쿠웨이트 독립 58주년 및 해방 28주년 즈음 同國 추장에게 축전(2.25, 노동·중통·중방)

- 2.27. 주북 체코 대사 신임장 접수(2.27, 중통·중방)
- 2.28.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재선 축하 축전(3.1, 노동·중통·중방)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 2.12.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금강산)(2.14, 중통·중방·평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2.25, 노동·중통)

김영철(당 부위원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 2.27. 김정은 위원장, 美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단독 환담 및 친교 만찬시 배석(2.27, 노동·중통·중방·평방)

김일국(체육상)

- 2.1.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경기관)(2.1, 노동·중통·중방)
- 2.4.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경기관)(2.4, 노동·중통)
- 2.12.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단장으로 스위스 방문차 평양 출발(2.12, 노동·중통·중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

- 2.15.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 참석(빙상관)(2.15,

노동·중통)

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 2.13.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러시아 문화성 간 2019-2020년 문화협조계획서 조인식 참석(만수대의사당)(2.13, 노동·중통·중방)
- 2.20.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즈음 영화감상회 참석(대동문영화관)(2.20, 노동·중통·중방)

김재룡(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 2.16. 장자산소년단야영소 겨울철 첫 기 야영시작모임 참석(2.16, 노동·중통)

김평해(당 부위원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김형룡(인민무력성 부상)

- 2.11.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40주년 즈음 이란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11, 노동·중통·중방)
- 2.19. 설 명절 즈음 주북 중국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19, 노동·중방)
- 2.22.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 즈음 주북러시아대사가 마련한 연회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22, 노동·중통·중방)

노광철(인민무력상)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시 맞이(2.9, 노동·중통·중방)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4.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4, 노동·중통)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로두철(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리길성(외무성 부상)

- 2.19. 설 명절 즈음 주북 중국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19, 노동·중방)
- 2.21. 조중친선 봄맞이 모임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21, 노동·중통·중방)
- 2.28. 외무성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 방문 위해 평양 출발(2.28, 노동·중통·평방)
- 2.28. 외무성 대표단 단장으로 왕이 중 외교부장과 면담(베이징 조어대 국빈관)(3.1, 중통)
- 2.28. 외무성 대표단 단장으로 공현우 중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3.1, 중통)

리만건(당 제1부부장)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1.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2, 노동·중통·
중방)
- (미상) 김정은 위원장,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시 동행(2.16, 노동·중방·
중통)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
중방·평방)

리명수(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
중방·평방)

리명철(조선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 2.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2.25, 노동·중통)

리병철(당 제1부부장)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
중방·평방)

리수용(당 부위원장)

- 2.4. 신임 주북 라오스 대사와 담화(2.4, 노동·중통·평방)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3.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2.13, 노동·중통·중방·평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
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21. 광명성절 즈음 주북 이란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21, 노동·중통·중방)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리영길(총참모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시 맞이(2.9, 노동·중통·중방)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1.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2, 노동·중통·중방)

리영식(당 제1부부장)

- (미상) 김정은 위원장,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시 동행(2.16, 노동·중방·중통)

리용호(외무상)

- 2.4. 재임된 토고 외무상 · 아프리카통합 및 해외 동포상에게 축전 (2.7, 중통)
- 2.4. 재임된 레바논 외무 및 이민상에게 축전(2.7, 중통)
- 2.13. 방북한 베트남 외무장관과 회담(만수대의사당)(2.13, 노동·중통·중방)
- 2.13. 북한 정부가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을 환영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만수대의사당)(2.13, 노동·중통)
- 2.15. 세르비아 국경절 맞이 同國 제1부상 겸 외무상에게 축전(2.15, 중통)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21. 주북 라오스 대사와 담화(2.21, 중통)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 2.23. 브루나이 국경절 즈음 同國 외교2장관에게 축전(2.23, 중통)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 2.27. 김정은 위원장, 美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단독 환담 및 친교 만찬 진행시

배석(2.27, 노동·중통·중방·평방)

리일환(당 부장)

- 2.14. 광명성절 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참석(창광원 수영장)(2.14, 노동·중통·중방)
- 2.14. 공로있는 선수, 감독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모임 참석(조선태권도위원회)(2.14, 노동·중통·중방)
- 2.14. 근로단체들의 광명성절 경축모임 참석(2.14, 노동·중통·중방)
- 2.15.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 참석(빙상관)(2.15, 노동·중통)
- 2.17.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폐막식 참석(빙상관)(2.17, 노동·중통)

리창근(당 부부장)

- 2.19. 설 명절 즈음 주북 중국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19, 노동·중방)
- 2.20.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즈음 중국 예술인들의 조중친선 봄맞이 종합 공연 참석(봉화예술극장)(2.20, 노동·중통·중방)
- 2.20.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즈음 영화감상회 참석(대동문영화관)(2.20, 노동·중통·중방)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 2.7.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참석(인민문화궁전)(2.7, 노동·중통)

리형근(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 2.16. 장자산소년단야영소 겨울철 첫 기 야영시작모임 참석(2.16, 노동·중통)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 2.21. 조중친선 봄맞이 모임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21, 노동·중통·중방)
- 2.26. 북중 문화협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60주년 즈음 대외문화연락위원회·민용항공총국이 마련한 연회 참석(2.26, 중통·중방)

박명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겸 서기국장)

- 2.12.-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금강산)(2.14, 중통·중방·평방)
- 2.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2.25, 노동·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 (미상) 황해제철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 연합기업소 현지 방문(2.3, 노동·중통·중방)
- 2.4. 재임된 토고 수상에게 축전(2.7, 축전)
- 2.4. 재임된 레바논 내각 수상에게 축전(2.7, 중통·중방)
- 2.11.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2, 노동·중통·중방)
- 2.14.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4, 노동·중통)
- 2.15. 세르비아 국경절 맞이 同國 수상에게 축전(2.15, 중통)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19. 설 명절 즈음 주북 중국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19, 노동·중방)
- 2.22. 방글라데시 대형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발생 관련 同國 수상에게 위문전문(2.22, 중통·중방)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환송(2.24, 노동·중통·중방)
- (미상) 안주펌프공장·안주절연물공장 등 여러단위 현지방문(2.26, 노동·중통·중방)

박철민(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2.14. 광명성절 경축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관람(2.14, 노동·중통·중방)
- 2.16.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2.16, 노동·중통·평방)

박춘식(문화성 부상)

- 2.21. 조중친선 봄맞이 모임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21, 노동·중통·중방)

박춘남(문화상)

- 2.13. 광명성절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첫 음악무용종합공연 참석(평양대극장)(2.13, 노동·중통)
- 2.20.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즈음 중국 예술인들의 조중친선 봄맞이 종합공연 참석(봉화예술극장)(2.20, 노동·중통·중방)

박태덕(당 부위원장)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박태성(당 부위원장)

- 2.7.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참석(인민문화궁전)(2.7, 노동·중통)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4.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14,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16.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2.16, 노동·중통·평방)
- 2.21.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폐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21, 노동·중통·중방)

신홍철(외무성 부상)

- 2.11.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40주년 즈음 이란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2.11, 노동·중통·중방)

- 2.21. 광명성절 즈음 주북 이란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2.21, 노동·중통·중방)

안정수(당 부위원장)

- 2.11. 김정일 원산구두공장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2.12, 노동·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2.14.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14,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21.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폐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21, 노동·중통·중방)

오수용(당 부위원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11. 김정일 원산구두공장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2.12, 노동·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임천일(외무성 부상)

- 2.13. 러시아 외교 일꾼절 맞이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마련한 연회 참석(대동강 외교단회관)(2.13, 노동·중통)
- 2.18. 설 명절 즈음 주북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참석(2.18, 노동·중통·중방)

임철웅(내각 부총리)

- 2.7.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참석(인민문화궁전)(2.7, 노동·중통)

장철(국가과학원장)

- 2.7.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참석(인민문화궁전)(2.7, 노동·중통)

전광호(내각 부총리)

- 2.1.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경기관)(2.1, 노동·중통·중방)
- 2.4.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2.4, 노동·중통)
- 2.11.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 개관식 참석(조선우표박물관)(2.11, 노동·중통·중방)
- 2.14.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14, 노동·중통·중방)

- 2.14. 광명성절 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참석(창광원 수영장)(2.14, 노동·중통·중방)
- 2.15.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 참석(빙상관)(2.15, 노동·중통)
- 2.17. 제26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 폐막식 참석(빙상관)(2.17, 노동·중통)
- 2.20.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1주년 즈음 중국 예술인들의 조중친선 봄맞이 종합공연 참석(봉화예술극장)(2.20, 노동·중통·중방)
- 2.21.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폐막식 참석(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2.21, 노동·중통·중방)
- 2.26. 북중 문화협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60주년 즈음 대외문화연락위원회·민용항공총국이 마련한 연회 참석(2.26, 중통·중방)

정경택(국가보위상)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주영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2.4.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2.4, 노동·중통)

조연준(당 검열위원장)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조용원(당 부부장)

- 2.26.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시 동행(2.27, 노동·중통·중방)

채춘희(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2.11.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40주년 즈음 이란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 (대동강외교단회관)(2.11, 노동·중통·중방)

최룡해(당 부위원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위원장,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시 동행(2.16, 노동·중방·중통)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환송(2.24, 노동·중통·중방)

최부일(인민보안상)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1. 전국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참석(인민문화궁전)(2.12,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중방·평방)

최선희(외무성 부상)

- 2.23.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 출발시 동행(2.24, 노동·중통·중방)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 2.13. 신임 주북 라오스 대사와 담화(만수대의사당)(2.13, 중통)

최휘(당 부위원장)

- 2.1.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경기관)
(2.1, 노동·중통·중방)
- 2.4.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2.4, 노동·중통)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2.25, 노동·중통)
- (미상) 식수절 즈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지 근로자, 청소년·학생, 일군들 나무
심기 행사 참석(3.1, 노동·중통·중방)
- 2.28. 알곡과 축산물을 늘이기 위한 2018년 사회주의 경쟁 총화 회의 참석(3.1,
노동·중통·중방)

태종수(당 부위원장)

-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71주년 맞이 조선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
부대장들과 함께 경축공연 관람시 동행(2.9, 노동·중통·중방)
- 2.8.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식 참석(2.9, 노동·중통·중방)
- 2.15. 김정일 탄생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평양체육관)(2.16, 노동·중통·
중방·평방)
- 2.16. 김정일 탄생 77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2.16, 노동·중통)

태형철(北-이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겸 고등교육상)

- 2.11.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40주년 즈음 이란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
(대동강외교단회관)(2.11, 노동·중통·중방)

한만혁(당 부부장)

- 2.11.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40주년 즈음 이란대사관이 마련한 연회 참석
(대동강외교단회관)(2.11, 노동·중통·중방)
- 2.13. 리수용 당 부위원장,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시 배석(2.13, 노동·중통·
중방·평방)

월간 보도일지

02.01.(금)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중국에서 귀국한 친선예술대표단과 기념촬영(노동신문·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 77주년 계기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밀영' 답사 행군 출발모임(중앙통신)
 - '광명성절' 맞아 진행된 체육행사 소개(중앙통신·중앙방송)
 -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 국제 피겨축전 평양보통강반빙상관에서 진행
 - 수중체조무용 모범출연 창광원 수영관에서 진행
 -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개막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반통일세력 투쟁' 주장(중앙통신)
 - 기타동향
 - 루마니아 조선친선협회, 김정은 위원장에게 명예상장 전달(중앙통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 지지(중앙통신)

02.02.(토)

대내 ○ 300여 가지의 품질 우수 제품, '2월2일제품'으로 등록(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중앙통신)

02.03.(일)

- 대내**
- 자립경제 강화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노동신문/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조직 및 사업 착수(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중앙통신)
 - '광명성절' 기념 소나무 미술전시회 진행(중앙방송)

대남 ○ 前국무총리 정계 복귀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박근혜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 대외**
- 김정은 위원장,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연하장 전달(중앙통신)
 -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명,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문답,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정부와 인민의 자주적 의사 존중" 입장 발표(중앙통신)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말레이시아 16대 국왕에게 '즉위' 축전(중앙통신)

02.04.(월)

- 대내**
- '광명성절' 기념 영화감상모임 진행(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관련 동향
 - 인민무력성, 주북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마련(중앙통신)
 - 여맹,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위대성연구발표모임' 진행(중앙통신)
 - '공화국 영웅'과 평양시 청년학생들과의 상봉모임(중앙통신)
 -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중앙통신)
 - 주북 무관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노광철 인민무력상에게 전달(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미국에 "공정한 제안과 올바른 협상자세" 촉구(우리민족끼리/세계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북한 적십자회, 조난 선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방조를 제공한 일본에 사의 표시(중앙통신)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독립 71주년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축전(중앙통신)
 - 리수용 당 부위원장, 신임 주북 라오스 특명전권 대사와 담화(중앙통신)

02.05.(화)

- 대내**
- 각지 설 명절맞이(노동신문·중앙통신)
 - 평성김치공장 건설(중앙통신)

대남 ○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중앙통신/'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본 보수 역적패당의 추악한 행태)

대외 ○ '광명성절'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평양 도착(중앙통신)

02.06.(수)

대내 ○ 다수확 성과를 위하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통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킬 것 강조(노동신문/과학농사 열풍이 안아온 결실)

대남 ○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F-35A 실전배치' 비난(노동신문/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위험한 처사)

대외 ○ 인민무력성,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 주북 무관단을 위한 연회 마련(중앙통신)

02.07.(목)

- 대내**
- 농업 및 인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 확보 투쟁' 강조(노동신문/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노동신문/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것은 애국주의의 발현)
 - 김정일 위원장 생일 77주년 관련 동향
 -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진행(중앙통신)

-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진행(중앙통신)
- 삼자연군 김정일 동상 앞,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 진행(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관련 동향
 - '공화국 영웅'과 근로단체들의 상봉모임 진행(중앙통신)
 - 근로자·학생·군인 등 조선혁명박물관 연일 참관(중앙통신)
- 산림복구 2단계 적극 추진, 산림책임할당제 도입(조선신보)

- 대남**
- '방위비분담금' 관련 보수정당 및 우리 언론 비난(노동신문/사대매국노들의 해괴망측한 추태)
 -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관련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과의 관계문제 관련 보수정당의 '미래지향적' 발언 비난(우리민족끼리/천년숙적과 동조하다가는)

- 대외**
-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 비난(노동신문/위협비행사건에 깔린 불순한 기도)
 - 기타동향
 - 박봉주 내각총리·리용호 외무상, 재임 토고 수상·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
 - 박봉주·리용호, 재임 레바논 내각수상·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

02.08.(금)

- 대내**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군은 당이 굳게 믿는 제일기둥" 강조(노동신문/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다)
 -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관련 동향
 - 대성산혁명열사릉·신미리에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중앙통신)
 - 인민대표단들, 조선인민군·조선인민군내무군 부대 방문(중앙통신)

- 대남**
-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군사비 증액, 무기(F-35A, 글로벌 호크, SM-3)구입 비난(중앙통신/이중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 "남북관계 발전 방해" 보수정당 비난(노동신문/동족 대결을 부추기는 역적배들의 난동·중앙통신/평화번영의 격류에 떠밀리운 역적패당의 히스테리적 추태)

- 대외**
-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도발의 흥심을 폭로)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32회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 축전(중앙통신)

02.09.(토)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관련 동향
 - 인민무력성 축하 방문(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중앙위원회 주최 '경축연회' 참석(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UN 주재 일본 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기자회견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베트남 조류독감 피해 보도(노동신문)

02.10.(일)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꾸리기를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노동신문)
- 석탄 증산으로 '당의 전략노선 관철' 촉구(노동신문)
- '제23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총련 본부위원장 회의 진행(중앙통신)

02.11.(월)

- 대내 ○ 조선우표박물관 개건 개관식(중앙통신)
- '광명성절 경축 영화상영주간' 개막식(중앙통신)
- '제34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중앙통신)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미국 보수진영의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 견제(우리민족끼리)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연차총회 진행(중앙통신)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중앙통신/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혁명 40주년'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 (중앙통신)

02.12.(화)

- 대내 ○ '전국 노동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 진행(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 영유광산 등 현지 요해(중앙통신)
- 원산구두공장 김정일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노동신문)
- 허천강발전소, '매일 계획 102% 이상 초과' 수행(중앙방송)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베트남 외무상 및 대표단, 평양 도착(중앙통신)
- 北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스위스 방문차 평양 출발(중앙통신)

02.13.(수)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평양시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공로 있는 단위와 일꾼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 생일 77주년 관련 동향
 -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 개막(중앙통신)
 - 우표 집중전시, '위대한 한 생' 진행(중앙통신)
 - '2019 얼음조각축전' 삼지연군에서 진행(중앙통신)
 -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중앙통신)
 -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진행(중앙통신)

- 대남 ○ 우리 군의 '혹한기 전술훈련' 및 'F-35A 실전배치' 비난(노동신문/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군사적움직임)
- 보수정당 등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안보붕괴' 주장 비난(중앙통신/대결광신자들의 파렴치한 안보붕괴타령)

- 대외 ○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은 평화를 향한 중대결단" 강조(노동신문/김정은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
- 리학남 일본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노동신문/독도강탈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 北 대외문화연락위 - 러시아 문화성 간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중앙통신)
- 리용호 외무상-팜 빙 밍 베트남 외무상 회담(중앙통신)
- 기타동향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주북 라오스 신임 특명전권 대사와 담화(중앙통신)

02.14.(목)

- 대내 ○ 김정일 생일 77주년 관련 동향
 - '제23차 김정일화축전' 개막식(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 등 각 계층, 백두산밀영 방문(중앙방송)
 - '제9차 광명성절요리기술경연' 평양면역에서 진행(중앙통신)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 종합공연 진행(중앙통신)
 -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진행(중앙통신)
 - 근로단체들, 경축모임 진행(중앙통신)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관계부문 회의(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 수여(중앙방송)
- 공로 있는 선수-감독들에게 국가표창 수여(중앙통신)

- 대남 ○ 금강산에서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진행(중앙통신)
-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난 '호소문' 발표(중앙통신)

- 대외 ○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 귀국(중앙통신)
- 기타동향
 - 주북 불가리아 특명전권대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 봉정(중앙통신)

02.15.(금)

- 대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3중3대혁명붉은기·2중3대혁명붉은기·3대혁명붉은기' 수여
 - 강계은하피복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강계면역 등(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영예의붉은기' 수여
-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 휘거(피겨)축전' 개막(중앙통신)

- 대남 ○ 자유한국당과 예비역 단체 등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판' 비난(노동신문/대결광신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

- 대외 ○ 대외정책 관련,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및 반동적 사상문화 침투행위 불허' 강조(노동신문/세계자주화 위업을 추동하는 자주적인 대외정책)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경절' 맞은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축전(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리용호 외무상, 세르비아 수상·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

02.16.(토)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생일 77주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하달(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 77주년 기념 사설,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독려(노동신문/위대한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치자)
 - 김정일 생일 77주년 관련 동향
 - 정부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
 - 당 중앙위원회, 경축연회 개최(중앙통신)
 -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중앙통신)
 - 조선소년단 전국 연합단체대회 진행(중앙통신)
 - 새 우표 발행(중앙통신)

- 대남**
- '민화협' 고발장 발표, 자유한국당 비난(중앙통신)

- 대외**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편지 전달(중앙통신)

02.17.(일)

- 대내**
-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 휘거(피겨) 축전' 폐막(중앙통신)

- 대남**
- '보수대통합' 관련 비난(노동신문/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재집결 소동)

- 대외**
- '북-중 문화협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연회, 베이징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 77주년 관련 동향
 - '재일조선인예술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담화 및 음악무용종합공연(중앙통신)

02.18.(월)

- 대내**
-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경제발전에 매진" 촉구(노동신문/정론, 《복섬》의 메아리)
 - 황해남도, '물 확보' 사업 주력(노동신문)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 면담(중앙통신)
 - 주북 러시아 대사관, 설 명절맞이 친선모임(중앙통신)

02.19.(화)

대내 ○ 김정일 '저작' 발표 45주년,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실현" 강조(노동신문/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신 걸출한 영도자)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주북 중국 대사관, 설 명절맞이 연회 개최(중앙방송)
○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비난(중앙통신/헌법 개정이자 전쟁국가 부활에로의 길이다)
○ 일본의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 발언 비난(노동신문/고립을 촉진하는 어리석은 망동)

02.20.(수)

대내 ○ 김정은 위원장, 평양시 중구역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청년들의 사상적 단결과 역할 강조(노동신문/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힘 있게 떨치자)
○ "강국의 자존심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서 나온다"며 '자만'을 버리고 '국풍'을 수립할 것 강조(노동신문/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중앙통신)
○ 조선우표박물관 개건 관련 우표 발행(중앙통신)

대남 ○ 자유한국당 비난(중앙통신/촛불민심을 우롱하는 보수패당을 징벌해야 한다)

대외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관련 미국 비난(노동신문/강압과 추종의 산물)
○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 1주년, 중국 예술인 종합공연·영화감상회 진행(중앙통신)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일본조선인 광명성절 축하단'과 담화(중앙통신)
- 駈토고 북한 특명전권대사, 토고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중앙방송)

02.21.(목)

대내 ○ 김정은 위원장, 룡청군·갑산군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관련 선전화 출판(중앙통신)
○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건설 위한 7만산발파 진행(노동신문)
○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진행(노동신문)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금성트랙터공장-대안천선유리공장
○ '제23차 김정일화축전' 폐막식(중앙통신)

대남 ○ 제1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남-북-해외 간 FAX로 진행(중앙통신)

대외 ○ '2019 북-중 친선 봄맞이모임' 진행(중앙통신)
○ 주중 북한 대사관, 2019년 새해 연회 마련(중앙통신)
○ 일본의 '헌법 개정' 관련 발언 비난(노동신문/무분별한 군국주의 부활책동)
○ 기타동향
- 리용호 외무상, 주북 라오스 대사와 담화(중앙통신)
- 주북 이란 대사관, '광명성절 경축' 연회 마련(중앙통신)

02.22.(금)

- 대내**
- '전력생산 증산 통한 사회주의경제건설 추동' 강조(노동신문)
 - "대외적 환경과 생활조건 좋아질수록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할 것" 강조(노동신문/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3월 상순 진행 예정(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기념우표 발행(중앙통신)

- 대남**
- 자유한국당 및 보수논객의 5.18 관련 발언 비난(노동신문/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반역패당의 망언)

- 대외**
- '2019년 일본시민지식인성명' 언급, 일본에 과거사문제 사죄 및 배상 촉구(노동신문/시급히 과거청산을 하여야 한다)
 - 기타동향
 - 박봉주 내각총리, '대형화재 인명피해' 관련 방글라데시 수상에게 위로 전문(중앙통신)

02.23.(토)

- 대내**
- 증산투쟁과 함께 "절약사업 강화" 강조(노동신문/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인재육성 및 과학교육 사업 강조(노동신문/인재 중시, 과학교육 중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방도)
 - '2018년 사회주의경쟁 총화회의' 진행(노동신문)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신의주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신의주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신의주신발공장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일본의 '핵무장화 준비' 비난(노동신문/일본의 뿌리 깊은 야망을 경계하여야 한다)
 - 외무성 대변인, 인도 '테러 공격 사건' 관련 "깊은 우려" 및 "테러 반대" 입장 표명(중앙통신)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브루나이 '국경절' 기념 국왕에게 축전(중앙통신)
 - 리용호 외무상, 브루나이 외무성 제2상에게 축전 발송(중앙통신)

02.24.(일)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23일 오후 평양 출발(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응우옌 푸 쩡'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 진행 예정(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선거자명부 공시(중앙통신)
 -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미풍 발휘, 비도덕적·비문화적 현상 통제, 일심단결, 책임일꾼들 역할' 강조(노동신문/우리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
 - '미세먼지'의 영향 및 방지대책 소개, 해결에 "적극 노력" 강조(노동신문)

대남 ○ '범민련' 북측본부 백서, 자유한국당 비난(중앙통신)

대외 ○ 미국의 '북미 협상 반대파' 비난(중앙통신/미국의 조미협상 반대파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 조선국립교예단, '제8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스페인)'에서 최고상 수상(중앙통신)
○ '광명성절 경축' 재일조선사회과학자 연구토론회(중앙통신)

02.25.(월)

대내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 강조(노동신문/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선거 관련 '호소문' 발표(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故진봉준 조선인민군 223호수산사업소 지배인 영전에 화환 전달(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미국 '블루릿지함'의 부산 입항과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참가병력 방한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평화흐름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쿠웨이트 독립 및 해방 기념 국왕에게 축전(중앙통신)

02.26.(화)

대내 ○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노동신문/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 조선의 국풍을 힘 있게 과시하자)
○ 김정은 위원장 연설('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발표 5주년 기념 찬양 기사(노동신문/사상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시킨 강령적 노작)
○ 박봉주 내각총리, 안주펌프공장 등 여러 단위 현지요해(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중앙통신)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기술혁신성과전시회' 진행(중앙방송)

대남 ○ '5·18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 비난(노동신문/정의와 진리에 대한 악랄한 모독)
○ '5·24 조치' 등 "교류협력 저해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제거" 주장(우리민족끼리)

대외 ○ '북-중 문화협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연회(중앙통신)
○ 일본의 '이집트 동부 자위대 파병 검토' 관련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해외 침략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일본의 망동을 단죄)

02.27.(수)

대내 ○ 김정은 위원장, 26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도착(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26일 오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대표단, 사업정형 보고(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서해지구 수산사업소, 올해 첫 출어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 노작('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토론회(중앙통신)

대남 ○ 전당대회 관련 자유한국당 비난(노동신문/민심의 저주를 받는 정치시정배 무리)

대외 ○ “미국의 결단에 상응한 선의의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강조(조선신보)
○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과거청산이나 똑바로 하라)
○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등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비난(중앙통신/《독도영유권》 주장은 재침의 전주곡이다)
○ 기타동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북 체코 대사 신임장 접수(중앙통신)
- 산토메 프린시페 주재 북한대사,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중앙통신)

02.28.(목)

대내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1일 회담 진행 보도(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 ‘3.1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중앙통신)
○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중앙통신)
○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진행(중앙통신)
○ 지난 1년간 14억 5,0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수십만 정보의 면적에 식수(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리길성 외무성 부상, 중국 방문 위해 평양 출발(중앙통신)

이달의 역사

- 02.01.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결성일(1946년 2월 1일 제정)
- 02.01. 평창올림픽 참가 북한 선수단 32명(단장: 원길우 체육성부상) 방남(2018년)
- 02.06 「일당백」 구호 제시일(1963년, 김일성 제시)
- 02.07 북한,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발사(2016년)
- 02.08 「조선 천도교 청우당」 창당일(1946년)
- 02.08 조선인민군 창건일(71주년, 1948년 2월 8일 창건, 2018년 1월 22일 제정)
- 02.09. 평창올림픽 개막식 북한 고위급대표단 파견(2018년)
- 02.10.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1973년)
- 0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2016년)
- 02.11.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2006년)
- 02.11. 北, '개성공단 폐쇄' 발표(2016년)
- 02.12.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1991년)
- 02.12.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2013년)
- 02.12. '북극성-2형' 발사(2017년)
- 0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발표(2007년)
- 02.14. 김정일 「대원수」 칭호 수여일(2012년)
- 02.16.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1942년) *2012년 1월 12일 제정, 2일 휴무
- 02.1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채택) 발효일
- 02.19.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 채택) 발효일
- 02.19.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과업」 발표일(1974년)
- 02.19. 정월대보름(음력 2019년 1월 15일 민속명절) *2003년부터 민속명절로 지정
- 02.20. '기계절'(1972년 1월 13일 제정)
- 02.21.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1947년 2월 21일,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
- 02.23 '금강산 육로 관광' 개시(2003년)
- 02.25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방침(테제)」 발표일(1964년)

- **02.25** 제2차 6자회담(2004년 2월 25일 ~ 28일, 베이징)
- **02.26** 제3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2001년 2월 26일 ~ 28일, 서울·평양)
- **02.28**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판문점 철수(1995년)